

| | |
|--------------------------------|---------------------------------|
| 코스피 2628.62 (-47.13) | 코스닥 853.26 (-8.97) |
| 금리 (연이자율) 3.543 (+0.034) | 환율 (원/달러) 1375.00 (+5.80) |

정의선 회장
인도 재방문
“특화 전기차 개발”
02



m-커버스토리

개와 늑대의 시간. 밤과 낮이 교차할 무렵, 내 앞에 나타난 짐승이 나와 함께할 것인지 나를 해치려는 늑대인지 구별되지 않는 시간을 말한다. 세계경제가 완만하게 회복되고 있지만 기대와 달리 금리인하 시기는 미뤄진 상태다. 우리경제도 ‘개’ (경제회복)인지 ‘늑대’ (경제위기)인지 분간하기 어려운 시공간에 접어들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美 금리 파도에 세계경제 휘청 금융불균형 완화... 위기 넘어야

떨어진 美 금리인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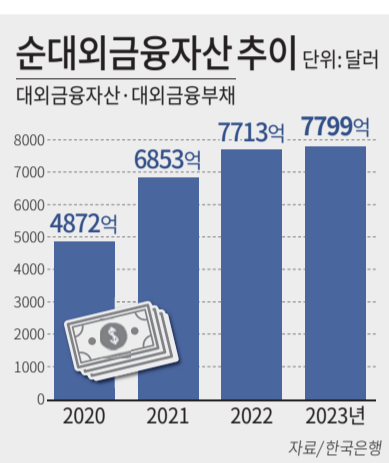
美 연준 “인플레이션 목표 확신 없어
기준금리 인하, 오래 걸릴 수도”

금리 인상, 달러가치 상승하면
고환율·고금리 등 경제 ‘위기’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은 현 5.25~5.50%의 기준금리를 당분간 지속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파월 의장은 “최근 지표는 인플레이션 목표달성에 대한 더 큰 확신을 주지 못하고 있다”며 “예상보다 (금리인하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했다. 미국 금리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우리나라 특성상 개와 늑대의 시간이 길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 되살아나는 ‘IMF위기’ 트라우마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이 시기를 보낸 이후 매년 위기를 겪어왔다.

지난 2022년 가을 정부의 한 관계자는 “과거 미국이 금리를 빠르게 올



린 시기마다 대체로 몇 년 뒤 아시아의 외환위기, 미국 서브프라임발 금융위기 등이 터졌다.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만약 경제위기가 우리나라까지 닥친다면 진원지는 다시 미국 연준일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이 금리인상을 하게 되면 미국이 블랙홀 처럼 세계의 자본을 빨아들여 원·달러 환율은 상승하고 물가는 올라 금융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미국 연준이 금리를 인상한 첫번째 시기(1996년 6월~200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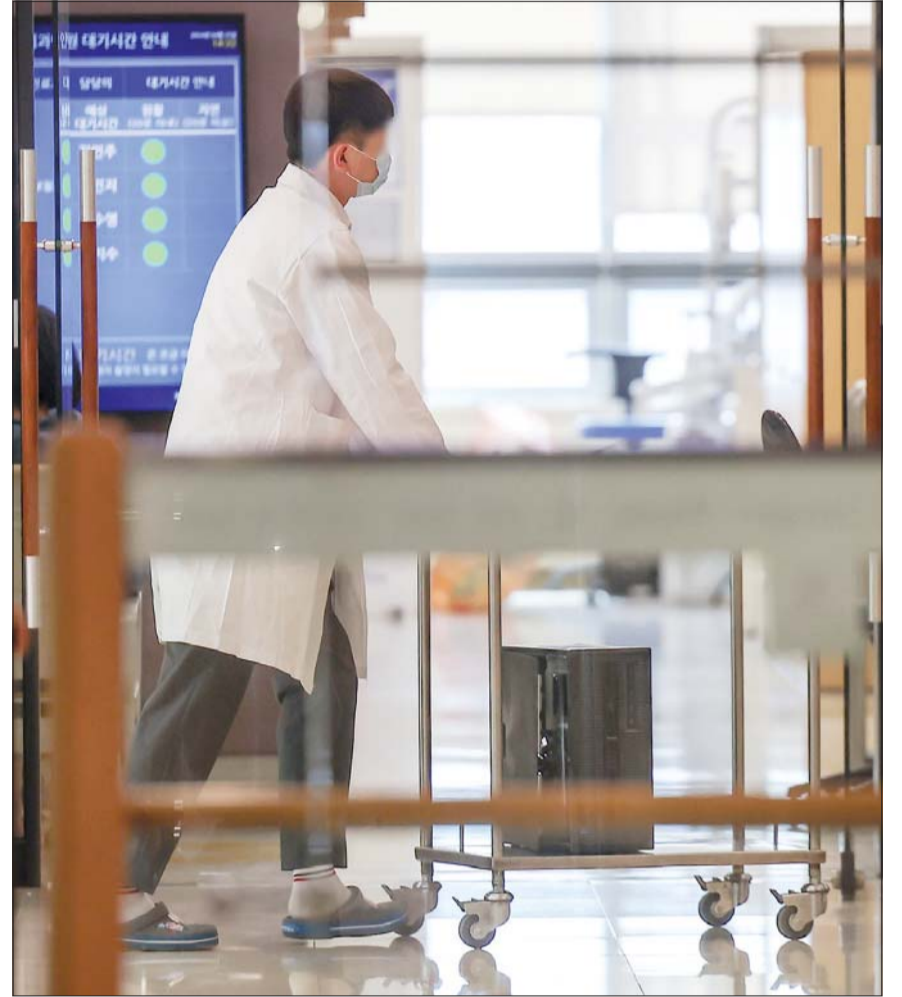
5월)의 끝자락에는 아시아 외환위기가 발생했다. 두번째 인상(2004년 6월~2006년 6월)한 이후에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도래했다.

시기마다 상황과 변수는 조금씩 다르지만 기본적인 충격의 전과경로는 대체로 비슷하다. 미국 연준이 물가를 잡기위해 금리를 인상하면 달러가치가 오르고, 다른 나라에서는 자금이 빠져나가 자국의 통화 가치가 떨어져 국가 대외 신인도가 타격을 입는다.

다른 나라들이 금리 격차 확대와 통화절하를 막기위해 미국을 따라 금리를 올리기 시작하면 고환율(달러대비) 환경에 고금리까지 겹쳐 수입업체나 소비자 등 경제주체들은 고통을 받고 소비위축 등으로 실물경제가 흔들리기 시작한다. 미국이 돈을 풀기 시작하면 글로벌 경제에서 가장 취약한 부분이 드러나면서 위기가 닥치는 구조다.

<4면에 계속>

/나유리 기자 yul115@metroseoul.co.kr



의대 교수들 사직 시작

정부의 의료개혁에 반대하는 의대 교수들이 사직을 시작한 25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뉴스1

헌재 “유류분 제도는 위헌”

“상속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 없어
유류분권 부여 이유 찾기 어려워
기준 조항 유지, 내년 말일 입법”

헌법재판소는 25일 오후 2시 유류분 제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및 헌법소원에서 일부 위헌 및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고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형제자매들의 최소 상속금액을 보장하는 유류분 제도가 위헌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유류분 제도는 고인의 유언과 무관하게 법이 정한 최소 상속 금액으로 특정인이 상속분을 독차지하는 것을 막기 위해 지난 1977년 도입됐다.

현행 민법에 따르면 망인의 자녀와 배우자는 각각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씩 보장받는다.

가령 부모가 두 자녀에게 총 2억원의 유산을 남겼을 경우 각각의 법정상속분은 1억원이며, 유류분 제도에 따라 법정상속분의 절반인 5000만원을 최소 금액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

헌재는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형제자매에게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을 보장한 민법 1112조 제4호가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재판관들은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상속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나 상속

재산에 대한 기대 등이 거의 인정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유류분권을 부여하는 것은 그 타당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고인의 배우자와 부모, 자녀의 법정상속분을 규정한 민법 제1112조 제1~3호의 경우에도 상실사유를 규정하지 않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재판관들은 “피상속인을 장기간 유기하거나 정신적·신체적으로 학대하는 등의 패륜적인 행위를 일삼은 상속인의 유류분을 인정하는 것은 일반 국민의 법감정과 상식에 반한다고 할 것”이라며 “민법 제1112조에서 유류분 상실사유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것은 불합리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해당 조항들에 대해 위헌결정을 선고해 효력을 상실시키면 법적 혼란이나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기존 조항들을 유지한 채 2025년 12월 31일까지 입법하라고 결정했다.

헌법재판소 관계자는 “유류분 제도는 오늘날에도 유족들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가족의 긴밀한 연대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점에서 헌법적 정당성은 계속 인정했다”며 “다만 일부 유류분 조항에 대해 위헌(헌법불합치)을 선언하고 입법 개선을 촉구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덧붙였다.

/최규춘 기자 ch9720@

巨野 민주당, 22대 국회서도 ‘강성팬덤’ 휘둘리나

비·친 이재명계 구분 도구로 활용
강성 지지층, 행동반경 점점 넓혀
의원·당선인들도 강성팬덤 의식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22대 총선에서 시민들이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한 윤석열 정권 심판론에 힘을 실어주며 범야권이 사상 최대의 압승을 거뒀지만, 이들이 일부 강성 팬덤에 휘둘러 대립을 일삼는 ‘정쟁’을 반복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인물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한국 정치에 특성에 따라 특정 정치인에 대한 지지를 강하게 표현하거나 추종하는 이른바 ‘강성 팬덤’은 여야 주요 정치인을 가리지 않고 나타났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문재인 전 대통령, 이재명 민주당 대표 등도 일종의 팬덤의 수혜를 입은 정치인인데, 최근에는 팬

덤이 상대 정당과의 소통을 가로 막거나, 내부 이견에 대한 공격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어 문제가 된 지 오래다.

21대 국회에서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의 당권을 잡은 후, 강성팬덤은 비이재명계를 친이재명계와 구분짓는 도구로 활용돼 왔다. 이른바 개발(개혁의

딸), 양아들(양심의아들) 등으로 불리는 이 대표의 강성 지지층은 비이재명계 의원 등에게 욕설이 담긴 문자 등을 서슴없이 보내고 지역구 사무실에 방문해 항의 표시를 하는 등 행동 반경을 넓혔다.

민주당은 지도부를 선출하는 전국대의원대회에서 대의원의 표 반영 비율은 줄이고 권리당원의 표 반영 비율을 높이도록 하는 등 팬덤을 강화시키는 작업에 돌입했다.

제도적으로도 당원의 비중이 커지면서, 22대 국회에서의 의정활동을 앞둔 의원들과 당선인들도 팬덤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국회의장 출마자나 주요 당직을 맡은 의원들의 말도 한층 더 거세졌다.

<2면에 계속> /박태홍 기자 pth7285@

뉴스터미널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輿론회서 손소리 분출...“사람들 죽겠다는데 수출 잘된다 얘기만” /사진 뉴스1
▲대통령실 “경제성장률 예상 2.2% 넘을 듯”

▲박주민, 원내대표 선거 불출마...“추후 제 역할 고민”
▲우원식, 국회의장 도전 선언...“중립협소함 넘어설 것...판단·민심 우선”



▲한-호주, 내달 1일 외교·국방 장관회의...인태전략·방산 논의
▲한총리, 中 라오닝성 당서기에 중어선 불법조업 관심 당부 /사진 뉴스1

정의선 “인도 특화 전기차 개발... 클린 모빌리티 선도할 것”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HYUNDAI MOTOR GROUP

8개월만에 인도 재방문 “인도, 글로벌 수출 허브로 육성”

현대차, 내년 푸네에 신공장 완공
첸나이 공장과 100만대 생산체제
기아와 합산 약 150만대 생산 가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이 세계 4위 경제대국으로 급성장하고 있는 인도를 8개월 만에 전격 방문해 현지 전략을 공유했다.

정 회장이 인도 시장에 공들이는 이유는 인도 자동차 시장이 세계 3위로 올라설 정도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대차그룹은 인도 내 판매량을 꾸준히 늘려나가면서 지난해 1조원이 넘는 순이익을 거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과 러시아 판매 부진을 채우고 있는 셈이다.

25일 현대차그룹에 따르면 정 회장은



현대차 인도권역본부 델리 신사옥에서 열린 타운홀미팅이 끝난 후 인도권역 현지 직원들의 ‘셀피’ 요청을 받고 촬영하고 있는 정의선 회장. /현대차그룹

지난 23일(현지시간) 인도 하리아나주 구르기온시에 위치한 인도권역본부 델리 신사옥에서 현대차·기아의 업무보고를 받고, 중장기 전략을 심도있게 논의했다. 정 회장은 “인도 시장에 특화된 전기차 개발과 전기차 인프라 확충을 통해서 전동화에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겠다”면서 “전기차 보급이 본격화되는 2030년까지 인도의 클린 모빌리티를 선도할 것”이라고는 구상을 밝혔다.

인도는 국내 다음으로 최대의 생산기지다. 현대차는 푸네에 20만대 이상 규모의 신공장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현대차는 내년 하반기 푸네공장이 완공되면 첸나이공장(82만4000대)과 푸네공장을 주축으로 100만대 생산체제를 구축하게 된다. 기아도 올해 상반기에는 생산능력이 43만1000대로 확대된다. 이를 합산하면, 현대차그룹은 인도에서 약 150만대 생산 체제를 가동하게 된다.

현재 현대차는 인도 자동차 시장에서 점유율 2위를 기록하고 있다. 인도 전기차 시장 선점을 위한 전동화도 본격화한다. 이를 통해 인도를 대표하는 모빌리티 기업으로 도약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현대차는 올해 하반기 인도 첫 현지생산 전기를 선보일 예정이다. 올해 말 첸나이공장에서 SUV 전기차 양산을 시작으로 2030년까지 5개의 전기차 모델을 투입한다. 현대차 판매 네트워크 거점을 활용해 2030년에는 전기차 충전소를 485개까지 확대한다. 기아도 2025년부터 현지에 최적화된 소형 전기를 생산하고, 다양한 전기차 모델을 순차적으로 공급한다. 2026년 인도 진출 30주년을 맞는 현대차는 ‘2030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인도 정부는 2030년까지 전기차 판매 비중을 전체 자동차 판매량의 30%로 확대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강력한 전동화 정책도 펼치고 있다. 올해부터는 최소 5억달러를 인도에 투자하고, 3년 안에 전기를 생산하는 업체에게 최대 100%인 수입 전기차 관세를 15%로 대폭 인하하는 정책을 시행 중이다. 테슬라, BYD 등 세계 1·2위 전기차 기업들이 인도 시장에 적극적인 대응에 나선 것도 이 때문이다.

정 회장은 인도 현지 직원들과 타운홀미팅을 주재했다. 정 회장이 해외에서 직접 현지 직원들과 타운홀미팅을 가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타운홀미팅은 1시간으로 예정됐지만 30분 이상 연장됐을 정도로 관심이 높았다. 타운홀미팅은 인도 전 지역 직원들로부터 취합한 질문과 현장 즉석 질문들로 진행됐다. 인도에 대한 비전, 현대차 성장 요인, 인도 전기차 사업 계획 등 사업 현안에 대한 질의부터, 정의선 회장의 일상 관련 내용까지 다양한 질문이 오갔다고 회사는 설명했다.

정의선 회장은 “직접 만나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고 소통하고 싶었다”며 “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등으로 사업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인도를 글로벌 수출 허브로 육성해 나갈 것”이라며 “인도권역의 중요성을 고려해 앞으로 더 큰 역할을 해낼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최태원, 젠슨 황과 AI 반도체 동맹 강화

〈SK그룹 회장〉 〈엔비디아 CEO〉

美 실리콘밸리 엔비디아 본사 회동 SNS에 젠슨 황과 찍은 사진 게시
젠슨 황 “AI와 인류미래 함께 만들자”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24일(현지시간) 미국에서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와 만나 인공지능(AI) 분야에서 협력을 모색했다.

최 회장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젠슨 황 CEO와 함께 찍은 사진을 올렸다.

그는 사진과 함께 “혁신의 순간을 포착할 때는 카메라 각도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젠슨 황 CEO는 최 회장에게 선물한 책자에 “우리의 파트너십으로 AI와 인류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자”며 자신의 사인을 남겼다.

업계에 따르면 최 회장은 짧은 일정으로 실리콘밸리를 찾아 젠슨 황 CEO를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SK하이닉스는 엔비디아에 AI 반도체용 메모리인 HBM(고대역폭메모리)를 납품 중이다. 두 사람은 이번에 HBM 등 AI 분야에서 협력을 논의한 것으로 보인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최태원 SK그룹 회장(오른쪽)과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 /최태원 회장 SNS 갈무리

李 팬카페서 ‘추미애 국회의원’ 여론 조성

» 1면 ‘巨野 민주당, 22대 국회’서 계속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원 경선에 출마한 추미애 경기 하남갑 당선인은 지난 24일 CBS라디오에서 “지난 정권에서 끌려다니다가 검찰총장의 검찰권력 사유화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검찰 쿠데타가 목전에 다가왔는데도 막아내지 못하고 국민이 고통을 당했다”며 “검찰 쿠데타에 대해 협치라는 이유로 끌려다니다면 끌려다니다가 끝난다. 그래서 (국회의장이) 제대로 중심을 잡아야 한다”며 중재와 설득보다 야당의 필수 입법 추진을 돕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 대표 지지자들이 모인 팬카페 ‘재명이네 마을’엔 추미애 당선인이 국회의원장이 돼야 한다며 여론을 조성하는 글을 수시로 올라오고 있다.

당의 전략기획위원장으로 임명된 민형배 민주당 의원은 지난 22일 ‘오마이뉴스’ 기고에서 민주당 원내대표에게 필요한 네 가지를 언급하면서 “반성도 사과도 없는 청산의 대상에게 ‘협치’와 ‘타협’을 명분으로 끊임없이 반격의 기회를 제공하는 걸 민주주의라고 생각하는 건 심각한 오해”라며 강력한 대여투쟁을 예고했다. /박태홍 기자 pth7285@

봄, 영양으로 GO!

제19회 **영양산나물축제**
YEONGYANG WILD EDIBLE GREENS FESTIVAL

5월9일(목) - 12일(일) 영양읍내 / 일월산 일원

주최: 영양군 YEONGYANG-GUN
주관: YFTF 영양축제관광재단 Yeongyang Festival & Tourism Foundation

하이닉스, 1분기 '깜짝실적'... 차세대 HBM 양산 속도낸다

〈고대역폭메모리〉

매출 144% ↑... 영업이익 2.9조
청주공장 낸드 플래시 설비 증설
연내 HBM3E 12단 개발 계획



SK하이닉스는 24일 열린 이사회 결의를 거쳐, 충북 청주시에 건설할 신규 팹(Fab·공장) M15X를 D램 생산기지로 결정하고 팹 건설에 5조3000억원을 투자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장비 투자도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SK하이닉스는 장기적으로는 M15X에 총 20조원 이상의 투자를 집행해 생산 기반을 확충할 예정이다. /뉴스시스

SK하이닉스가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에 성공한 가운데, 거침없는 공격 경영으로 실적 균하기에 들어간다.

SK하이닉스는 청주에 낸드 플래시 생산기지 증설해 D램 생산기지로 바꾸고 폭주하는 HBM 수요에 본격 대응한다. 신제품 HBM3E 12단 생산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SK하이닉스는 25일 연결기준 매출 12조 4296억원, 영업이익 2조 8860억원을 기록했다고 공시했다.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44.3% 늘었고 영업이익은 지난해 4분기보다 더 커졌다. 순이익은 1조 9170억원에 달한다. 이번 호실적은 D램 평균판매가격(ASP)이 전기보다 20% 이상 상승하고 낸드 ASP는 30% 이상 오르는 등 메모리 가격 상승이 호실적으로 이어졌다. 낸드는 프리미엄 제품인 기업용 eSSD 판매 비중 확대로

가격이 오르자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

SK하이닉스는 천문학적인 규모의 투자도 진행한다.

SK하이닉스는 전날 이사회에서는 청주 M15X 공장을 D램 생산기지로 전환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SK하이닉스는 20조 원을 투입해 충북 청주시 낸

드플래시 생산기지에 D램 공장을 증설한다. 본래 낸드플래시 공장을 추가할 계획이었으나 인공지능(AI) 개발 열풍에 HBM D램 생산에 주력하기로 했다.

현재 M15X 공장은 낸드플래시 공장으로 짓기 위한 터파기 공사를 마친 상태다. 공장 건립 후 장비를 들이면 바로 D램 생산이 가능한 상황인 만큼 양산 시점은 내년 11월로 전망된다. 11월 이후에는 순차적으로 장비를 증설해 생산량을 늘릴 예정이다. SK하이닉스는 건설(5조3000억원)과 장비 구입 등에 모두 20조원을 책정했다.

M15X의 D램 생산 전환기지로의 전환은 내년 하반기 호실적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SK하이닉스는 실적 컨퍼런스콜에서 차세대 HBM(고대역폭메모리)인 HBM3E 12단 생산 계획을 발표했다. SK하이닉스 추정에 따르면 내년 중반기 이후 HBM3E 12단 수요가 본격화 할 것으로 보인다.

SK하이닉스는 "올해 고객이 원하는 HBM3E 제품은 주로 8단"이라며 "HBM3E 12단 제품은 고객 요청 일정에 맞춰 올해 3분기 개발을 완료 후 고객 인

증을 거친 다음 내년 수요 시점에 안정적으로 공급하려고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 진척도를 고려하면 가까운 시일 내에 HBM3와 비슷한 수준의 수율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원가 측면에서도 빠른 안정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SK하이닉스는 HBM 시장의 공급 과잉 직면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도 낙관하고 있다. SK하이닉스 측은 "HBM 시장은 여전히 AI 서비스 고객사 확대와 유즈케이스 증가와 같은 다양한 요인으로 급격한 성장 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제품 경쟁력과 대규모 양산 경험을 기반으로 상당수 기존 고객 잠재고객들과 함께 2025년 이후까지 장기프로젝트를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김서현 기자 seoh@metrosoul.co.kr



이동석(왼쪽부터) 현대자동차 대표이사, 최준영 기아자동차 대표이사,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문성준 HKASA 현대기아협력회 회장이 25일 서울 강남구 현대자동차그룹 KIA360에서 열린 자동차산업 상생협력 확산을 위한 협약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스시스

현대차·기아, 협력사 상생 '앞장' 현장 근로여건 개선 120억 투입

고용노동부와 원·하청 상생협약 체결 공동 어린이집 신설 등 복지사업 시행

현대·기아차와 1차 협력사가 2,3차 하청 근로자 근로여건 개선에 120억원을 투자한다.

현대자동차·기아는 25일 서울 강남구 KIA360에서 고용노동부와 중소협력사 10개사가 참여한 가운데 원·하청 상생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난해 조선업에 이어 자동차산업에서 대기업과 협력사 간 격차 완화와 약자 보호를 위한 것으로, 그간 경영안정과 생산성 향상 중심 지원을 넘어, 2,3차 협력사 근로여건 개선에 초점을 뒀다.

미래차 전환과 탄소 중립 등 불확실한 여건 속에서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중소협력사의 근로여건 향상이 중요하다고 봤기 때문이다.

협약에 따라 현대·기아차는 복리후생-인력양성-산업안전등근로여건전 부문에 걸쳐 120여억원 규모의 신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현대·기아차는 중소협력사의 복지 증진을 위한 재원을 출연하고 근로환경 개선, 휴가비 등 협력사 여건에 맞춤 복지사업을 시행한다.

또 협력사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 환경 조성을 위해 공동 어린이집을 최초로 신설하기로 했다.

아울러, 자동차산업에 새롭게 진입한 근로자 대상 장기근속에 따른 지원금을 지급하고, 산업전환과 관련된 교육과 컨설팅도 확대하는 한편, 중소협력사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노후·위험 공정 개선 비용을 지원한다.

1차 협력사도 힘을 보탠다. 업계 최초로 1차 협력사협력회는 2,3차 협력사의 근로여건 개선을 위한 재원을 출연하기로 했다. 또 산업 전반의 상생 문화 확산을 위해 현대·기아차는 1차 협력사의 상생 노력에 대한 제도 개선, 인센티브를 검토하기로 했다.

기존 생산성 향상 컨설팅과 기술유출 보안 관리, 해외수출 마케팅 지원을 확대하고, 저금리 대출 등 2,3차 협력사를 위한 금융 지원도 지속한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생애 전반에 걸쳐 건강을 든든하게 책임지는
장인들의 활약이 시작된다

★★★★★
주요 질병부터 치매까지 평생 보장하는
[평생건강보험]

★★★★★
최신 암치료까지 보장하는
[암보험]

★★★★★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딱 맞는
[종합건강보험]
(5대종신보험)

★★★★★
합리적으로 뇌, 심장을 보장하는
[뇌·심장보험]

교보생명 건강보장보험군

교보생명 건강보장군이 궁금하다면 QR코드를 확인하세요

• 교보생명은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일반생리보험금은 '고의적 사고 및 3년 이내의 자살의 경우'에 지급을 제한합니다. •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신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보험인수가 가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이 보험계약은 예금저축보통예금에 해약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에 1인당 '5천만원까지' 본 보험회사의 여타 보험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이와 별도로 본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 보호됩니다. (단,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이면 보호되지 않습니다.) • 암보험계약(일일 보험계약)일부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단, 피보험자가 15세 이하인 경우에는 보험계약일로 한다. 다만, 부활(회복)회복 계약의 경우에는 부활(회복)회복일부터 부활(회복)회복일을 포함하여 90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단, 피보험자가 15세 이하인 경우에는 부활(회복)회복일입니다. • 보험계약 체결 전에 상품설명서와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준법감시인책임필 1-2404-13 상품이케팅팀(2024.04.02~2025.04.01) 생명보험협회 심의필 제 2024-02077호(2024.04.09~2025.04.08)

KYOBO
교보생명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와 금융위기를 거친 우리에게 가장 깊이 박힌 인식은 '부동산 불패'였다. 팔려는 이보다 사려는 이가 많아지면서 부동산 가격은 천정부지(天井不知)로 치솟았고, '부동산 불패'라는 인식은 빚을 내서라도 구매해야 한다는 욕구를 불러일으켰다.

25일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ECOS)에 따르면 가계부채의 절반 이상은 주택담보(주택구매·전세자금)대출인 것으로 나타났다. 예금은행과 비예금은행을 포함한 가계대출잔액은 2월 기준 1233조9356억원으로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778조원으로 집계됐다. 전체 가계대출의 64% 수준이다. 신용대출을 포함한 기타대출 잔액은 2021년 이후 감소했지만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꾸준히 증가했다.

ECOS, 가계 빚 절반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등 줄었지만 주담대 여전 주택가격 높고 수요자 꾸준히 발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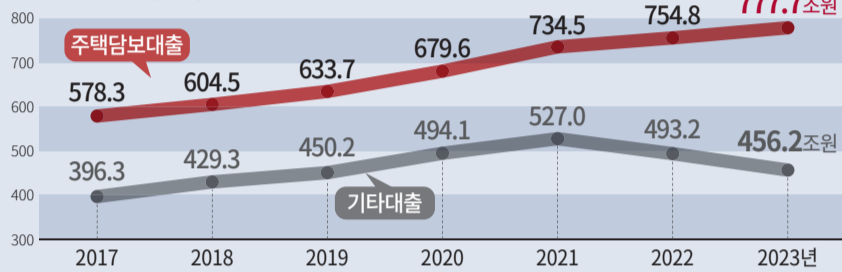
◆ 떨어지지 않는 '집값'

주택자금대출이 늘어난 이유는 여전히 주택가격이 높고, 주택을 사려는 이들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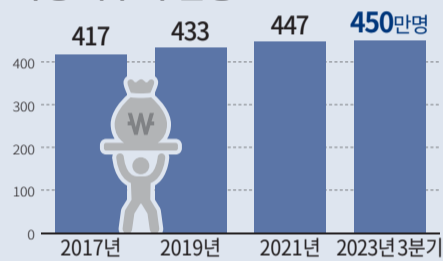
한국부동산원의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을 살펴보면 올해 3월 서울기준 아파트는 평균 10억 5133만원에 거래됐다. 아파트 가격이 급격히 오르기 전인 2021년 6월(9억 1712억원)과 비교하면 1억원 이상 비싸다. 통상 아파트 평균매매가격이 단계별로 2000만~3000만원씩 오른 것과 비교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이전과 비교해 아파트를 구매하는 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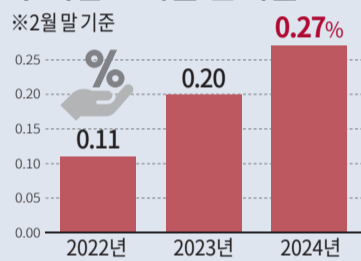
가계대출 추이



다중채무자 현황



주택담보대출 연체율



들은 감소했지만, 수요는 꾸준한 상황이다. 3월 기준 서울의 아파트 매매는 3만 6439건으로 지난해(1만 5384건)와 비교해 2배 이상 증가했다. 10년전인 2014년부터 거래 평균건수(8만 1000건)와 비교하면 여전히 낮은 수준이지만 매매거래는 이뤄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 고금리 장기화 예고

문제는 고금리가 장기화할 경우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시기가 밀려나면서 은행채 금리가 상승하고 있다. 전날 기준 은행채(무보증·AAA) 5년물 금리는 3.936%로 1월 초(3.820%)와 비교해 0.1%포인트(p) 올랐다.

예금은행의 고정형 주담대 금리는 지난해 말 기준 3.65%로 금리를 인하하기 전인 2021년 4분기(2.93%)보다 0.72%p 올랐다. 변동형 주담대 금리는 같은 기간 2.68%→4.79%로 2.11%p 상승했다. 현 수준의 금리가 장기간 유지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기준금리가 큰 폭으로 한 번에 인하될 가능성도 작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앞으로 인플레이션은 율동불통한 여정이 될 것"이라며 "과거 통화정책 사례는 금리를 섰 불리 내렸다가 다시 올리지 않으려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을 가르쳐 준다"고 말했다. 이는 금리인하 속도가 빠르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로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이전 수준의 금리를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설명이다.

◆ 취약차주 중심 고금리 여파 시작

고금리 여파는 상대적으로 상환여력이 부족한 취약차주를 중심으로 시작되고 있다.

지난해 3분기말 기준 가계대출 다중채무자는 450만명으로 한국은행이 데이터베이스(DB)를 집계하기 시작한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가계대출을 받은 차주 중 다중채무자도 1983만명으로 23%에

달했다. 다중채무자는 3개 이상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받은 차주를 말한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부동산 관련 대출을 중심으로 전체 가계대출이 증가하면서 다중채무자도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며 "고물가와 고금리가 장기화하면서 생활자금이 부족해 추가로 대출을 받는 생계형 다중채무자도 늘어났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체율도 증가하는 추세다. 국내은행에서 1개월 이상 원리금이 연체된 가계대출 비중은 0.42%로 금리인상시기인 2021년 2월(0.19%)과 비교해 0.23%p 상승했다. 주택담보대출 연체율도 같은 기간 0.11%에서 0.27%로 증가했다.

작년 3곳 이상 다중채무자 450만명 생활자금 부족, 생계형 대출 늘어나 주담대 연체율 2021년비 0.23%p ↑

또 고금리 이자부담에 부동산을 팔려는 이는 늘고 있지만, 사려는 이가 줄면서 부동산가격은 하락하고 있다. 부동산가격이 하락하면, 이를 담보로 대출해준 금융기관의 시스템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한국은행도 지난달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서 주택가격이 더 떨어질 경우 채무상환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가계의 자금 조달이 주로 부동산 담보를 통해 이뤄지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주택가격의 급격한 하락은 상환 능력이 약한 주담대 차주를 중심으로 신용위험을 확대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metroseoul.co.kr

고금리에 소비·투자 위축... '내수부진' 우려

» 1면 '떨어진 美 금리인하'서 계속 금융기관·시스템 부실 가능성 커

◆ 가계 빚·부동산쏠림... 금리 등 충격에 '취약'

다만 그때와 지금은 다르다. 우선 달러 가치가 오르면서 고환율이 지속되고 있는 점은 주변국 통화도 약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자본유출 우려가 낫다. 달러·엔 환율은 34년 만에 가장 높은 154엔 중반까지 올랐고,

달러·위안 환율도 7.1위안으로 지난해 평균(7.08위안)보다 상승했다. 달러·엔·위안 환율 상승은 달러 대비 엔·위안화 가치의 하락을 의미한다. 금융위기 당시 엔화 가치는 오르는 가운데 원화 가치만 급락(환율은 급등)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우리나라의 외화자금시장도 부채보다 자산이 많은 선진국형 구조로 바뀌었다. 해외 투자자산이 적고 대외부채가 많은 상태에서는 환율이 오를 때 대외부채 상환 부담이 커져 신용 위험이

커진다. 반면 해외 투자자산이 더 많을 경우 환율이 오르면 대외순자산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어 오히려 외화자금 시장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다.

지난해 우리나라 순대외금융자산은 7799억 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국제통화기금에 따르면 지난 2022년말 기준 한국의 순대외금융자산 규모는 전세계 9위다.

그럼에도 여전히 가계부채와 자산부동산 쏠림(금융불균형) 현상은 우리 경제의 취약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고금리가 지속되면 차주의 상환 부담이 커지면서 소비·투자 위축 등으로 내수부진이 이어질 수 있다. 또 이자부담으로 집을 살 수 없거나 팔 수밖에 없는 사람이 늘면서 주택가격은 하락하고, 연체율은 높아져 금융기관·금융시스템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도 커진다.

한국은행이 "경제규모에 비해 과도한 수준의 가계부채가 장기간 지속될 경우 가계의 채무상환부담을 증가시켜 소비를 위축시키고 성장을 저해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 금융시스템의 취약성도 증대시킬 우려가 있다"는 보고서를 내놓은 것도 같은 맥락이다.

/나유리 기자



“먼훗날 네 여정은
 지금보다 훨씬 즐겁고
 더 안전할거야.”

더 즐겁고 안전한 미래 모빌리티,
 현대모비스의 전동화 기술이 만듭니다

HYUNDAI
MOBIS

“국민 신뢰 저버린 책임져야”... 민주·시민단체, 당정 압박

민주당, 세 차례 기자회견 가져
황석영 “尹 실정·무능... 사임 요구”

사법정의 바로세우기 시민행동
직권남용 등으로尹·이시원 고발

더불어민주당이 25일 고(故) 해병대 채 상병 사건 특검을 촉구하며 국회 운영위원회 소집을 요구하고 시민단체는 윤석열 대통령과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면서 정부여당을 압박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종교인·지식인, 해병대 예비역, 야당 소속 국회 운영위 위원 등과 총 세 차례 기자회견을 가지며 ‘의제 지키기’에 주력했다.

해병대 출신인 황석영 작가는 사건 발생의 근본 원인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공명심에 의한 것이라고 추측하면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미흡했던 윤석열 대통령이 즉각 사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법정의 바로세우기 시민행동과 해병대 예비역들은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과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을 직권남용과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황 작가는 “국가의 근본을 떠받치는 국민의 4대 의무 중 국방의 의무는 그야말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목숨까지 담보로 내놓을 만큼 위중하고 신성한 것”이라며 “정부는 누구에게나 공평하고 정의로써 이 의무를 마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신뢰를 주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군은 어느 위정자의 사

병이나 어느 장군의 출세 수단이 아니라, 국민의 아들딸이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국민의 군대”라며 “이러한 정부와 국민간의 신뢰를 저버린 대통령이나 일선 지휘관은 마땅한 처벌을 받아야 하고 정치사회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황 작가는 “우리는 이제까지 정부를 이끌어 오며 이루 헤아릴 수도 없는 실

정과 무능을 보여준 윤 대통령의 즉각 사임을 요구하며, 이후 특검을 위해 상정하고 거부당한 사건들을 차례로 규명해 이를 저지른 자들은 물론 동조하고 방임했던 모든 관계자의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법정의 바로세우기 시민행동과 해병대 예비역들은 윤 대통령과 이시원 비서관을 직권남용과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피고발인 윤석열은 대통령으로서 자신의 막강한 직무권한을 함부로 남용해 임 전 1사단장을 비호할 목적으로 채 상병 순직사건을 원칙대로 철저히 수사하려는 박정호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수사범위 축소 및 경찰이첩보류라는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대통령실과 국방부를 통해 부당한 외압을 행사했다”며 “심지어 박 전 단장에 대한 보복성 형사입건을 강행하게 만들었으므로 직권남용죄의 죄책을 져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피고발인 이시원은 대통령실의 핵심 참모인 공직기강비서관의 자리에서 대통령의 직권남용 행위에 대해

유재인 국방부 법무관리관 등에게 외압을 행사해 경찰로부터 사건 기록을 회수하게 만드는 등 관련 책임자 처벌을 위한 수사를 방해했으므로 공범의 죄책을 져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박주민 국회 운영위 야당 측 간사와 운영위원회 야당 측 위원도 기자회견장을 찾아 국회 운영위 개회를 요구했다. 이들은 “민주당과 더불어민주당합은 국회운영위 개회를 국민의힘에 요구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별다른 이유도 설명하지 않은 채 거부하고 있다”며 “지난해 12월 이후 벌써 6번째다. 야당의 개회요구에 국민의힘은 단 한차례도 응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에 대한 국민적 의구심과 불신은 쌓여가는데, 국민의힘이 국회운영위의 문을 굳게 걸어 잠고 있다”며 “운영위는 정부의 실정을 견제하고 바로잡는 곳이지 비호하는 곳이 아니다. 운영위원장을 국민의힘이 해서는 안 되는 이유를 스스로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글·사진=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국민의힘, ‘나경원-이철규 연대설’에 술렁

차기 당대표엔 비윤 나경원
원내대표엔 친윤 이철규로 균형
당사자들, 이같은 추측에 선 그어

국민의힘 차기 원내대표로 친윤(친윤석열) 핵심인 이철규 의원이 부상하면서, 당대표 자리는 나경원 서울 동작을 당선자가 차지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하지만 총선 참패 이후에도 반성 없이 ‘친윤 논쟁’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또 나 당선자와 이 의원은 25일 ‘나경원-이철규 연대설’을 부인하기도 했다.

이날 정치권에 따르면 이철규 의원은 내달 3일 열릴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거

에 출마를 고심하고 있다. 이에 여의도에서는 이 의원이 최근 연일 당선자들을 만나며 ‘표 모으기’에 열중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흘러나왔다.

‘이철규 원내지도부’의 필요성을 공감하는 쪽은 ‘윤심’(尹心)을 가장 잘 이해하는 이 의원이 원내대표를 맡아야 여소야대 국회를 돌파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차기 원내대표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의 강경 기류를 맞상대할 역량이 필요하고, 여당은 정부와 소통하며 대응해야 한다. 그렇다면 소통이 더 원활할 수 있는 원내대표가 필요하다”면서 이 의원에 힘을 실었다.

하지만 반대 측에서는 “특검법 표 단속을 위해 친윤을 내세우는 것 아니냐” “수도권에서 대통령 때문에 참패했는데, 친윤 원내대표를 내세우는 게 맞느냐” 등의 불만도 나온다.

이런 가운데 당의 간판급 정치인인 나경원 당선자와 친윤 핵심으로 꼽히는 이 의원이 전당대회와 경선에서 서로 도움을 주기로 했다는 ‘나경원-이철규 연대설’까지 나왔다.

원내사령탑은 친윤이 맡는 대신, 당권은 비윤(비윤석열)이자 수도권에 기반을 둔 나 당선자가 잡아야 균형이 맞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수도권 기반인 나 당선자가 전면에 나서야

국민의힘이 ‘영남당’ 이미지를 벗을 수 있다는 게 연대설의 근거다.

‘나-이 연대설’에 당내에서는 불만이 제기됐다. 조해진 의원은 이날 “정권 심판을 초래한 대통령 심복이 반성과 자숙은커녕 당의 대표가 되겠다고 나서는 모습은 대통령의 인식이 하나도 변한 게 없다는 신호를 국민에게 보내주고 있다”고 이 의원을 직격했다.

조 의원은 “대통령이 종전처럼 하수인을 내세워 당을 좌지우지할 생각이 아니라면, 민심을 거스르는 일련의 행태를 자제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나-이 연대설’의 당사자들은 이같은 추측에 선을 그었다. 나경원 당선자는 이날 CBS라디오에서 “이건 아닌데 하는 생각이 든다” 혹은 “그냥 웃을게요” 등 불쾌감을 드러냈다.

이어 “당대표를 내가 꼭 해야겠다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다”며 “다만 당이 앞으로 어떻게 돼야 하나에 대해서는 정말 고민하고 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꼭 당대표를 결심해본 적도 없다”고 말했다.

이철규 의원은 ‘나-이 연대설’에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라고 일축했다. 다만 원내대표 도전 가능성은 열어두면서도 “당 대표 선출은 전적으로 당원들의 몫”이라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나-이 연대설’에 대해 최민석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해병대원 특검, 김건희 여사 특검 등 국민께서 여야 없이 처리하라고 명령하신 법안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또 ‘용산 바라기’의 등판이라니 참담하다”면서 “국민을 섬길지도 친윤당이 될지 선택하라”고 거세게 비판했다.

/서예진기자 syj@

‘경포당’ ‘영남 자민련’... 與 토론회, 쓴소리 난무

여의도연구원, ‘총선이 남긴 과제’ 토론회
“당과 반대로 행동” “尹 이미지 망해”

국민의힘이 22대 총선 참패 이후 처음으로 개최한 당 차원의 토론회에서는 ‘경기도를 포기한 정당’(경포당), ‘영남 자민련’ 등 쓴소리가 쏟아져 나왔다. 지난 대선 이후 윤석열 대통령의 이미지가 나빠졌다는 지적도 있었다.

국민의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제22대 총선이 남긴 과제들’이라는 제목으로 토론회를 열었다. 총선 참패에 대한 반성문을 쓰기 위한 자리로, 당 차원에서 총선 평가 토론회를 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직접 총선을 뒀 후보들이 당의 선거 전략을 비판했다. 이 자리에는 당 지도부를 비롯해 현역 의원, 당선자 등 14명이 참석했다.



박명호(왼쪽 세번째)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제22대 총선이 남긴 과제들’ 총선평가 토론회에서 사회를 보고 있다. /뉴스시스

우선 ‘강북 협지’에서 당선된 김재섭 서울 도봉갑 당선자는 “강북에서 어떻게 당선됐냐고 묻는데, 솔직히 우리당이 하는 것과 반대로 했다”며 “이조(이재명·조국) 심판’ 얘기는 입 밖으로 꺼내지도 않았고 당에서 내려오는 현수막은 단언컨대 4년 동안 한 번도 안 걸었다”고 토론했다.

경기 고양병에서 낙선한 김종혁 전 조직부총장은 “사람들의 마음을 좌우하

는 건 콘텐츠가 아니라 스타일과 태도라는 걸 많이 느꼈다”면서 “대통령의 큰 정책이 문제라는 것보다 나는 대통령 스타일과 태도가 싫다”는 부분이 굉장히 많았다”고 언급했다.

이어 “아울러 ‘국가지도자인 대통령의 PI(President Identity, 최고경영자 이미지)’가 완전히 망했다. 개선되지 않으면 앞으로의 선거도 힘들 것”이라고 꼬집었다.

/서예진 기자

“‘先구제, 後회수’ 전세사기 개정안 부의”

홍익표 “내달 본회의서 처리할 것”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다음달 2일 본회의를 열어 ‘선(先)구제, 후(後)회수’ 원칙이 담긴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부의하고 22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 이를 처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정부와 국민의힘은 특별법 제정 당시에 여야가 합의한 실태조사와 보완입법 약속은 이행하지 않으면서 피해자의 눈물과 고통을 방치했다”며 “지난 2월 개정안이 본회의에 직회부된 이후에도 무책임에 대한 반성없이 계속 반대만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 원내대표는 “최초 법 시행 이후 피해지원위원회가 인정한 피해자 수가 1만5433명으로 늘었으나, LH가 매일

한 주택은 1건에 불과한 것을 비롯해 빚 부담이 늘어나는 금융지원을 제외한 피해지원 제도 이용 비율은 10%도 안되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전문가들이 피해자 규모를 현재 인정한 숫자보다 많은 2만5000명으로 가정해서 ‘선구제, 후회수’ 소요 재정을 추산한 결과 최대 4875억원의 소요를 발표한다”며 “이는 정부가 법안 반대를 위해 주먹구구식으로 발표한 수조원에 미치지 않고 ‘선구제, 후회수’가 이뤄져 손실율이 50%가 될 경우 그 규모가 더 줄어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주택도시보증기금 여유자금 운영규모가 29조원에 달해서 자금 재정이 악화될 수 있다는 주장에는 설득력이 없다”며 “특별법 개정안에 담긴 선구제 후회수 방안은 최소한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최악의 피해자를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태홍 기자

함께 성장하며
행복을 나누는 금융



밤 늦게도, 휴일에도 365일 꺼지지 않는 하나돌봄 어린이집

신청구분 | ①365일형: 24시간 ②주말·공휴일형: 토/일요일, 공휴일 9시~18시
신청방법 | 하나돌봄365 홈페이지(www.hanadolbom365.com)



돌봄 신청하기



하나금융그룹

| 하나금융지주 | 하나은행 | 하나증권 | 하나카드 | 하나캐피탈 | 하나생명 | 하나손해보험 | 하나저축은행 |
| 하나자산신탁 |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 | 하나에프앤아이 | 하나벤처스 | 하나펀드서비스 | 하나금융티아이 | 핀크 |

‘더 내고 더 받기’ 추가 논의 필요 vs 빠른입법 시급 ‘이견’

〈輿〉

〈野〉

輿 “개혁 취지, 고갈방지·지속가능” 연금연구회 “재투표” 목소리도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민주주의 성과 훼손 전대미문 사건 연금연구회 공식적인 사과 요구”



김상균 연금특위 공론화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시민대표단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뉴스시

국민연금 개혁 방향성 설정을 위한 시민토론의 결과를 놓고 파열음이 터져나온다. 시민대표의 56%가 ‘더 내고 더 받기’로 요약되는 모수개혁 1안을 선택했지만 입법에 앞서 협의를 진행해야 할 여야가 좁혀질 견해를 좁히지 못하면서 연금개혁이 좌초 위기에 처했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연금특위 간사인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연금특위 공론화위원회 시민토론 결과에 대해 “전 세계와 우리나라 연금개혁의 취지는 기금 고갈을 방지하고 지속 가능한 연금제도를 구축하는 것”이라며 “모수개혁 1안은 근본적으로 이 취지에 반대되는 개혁안이다”라고 지적했다.

‘모수개혁 1안’은 ‘더 내고 더 받기’로 요약할 수 있다. 현행 보험료율(9%)을 13%로 상향하고 소득대체율도

40%에서 50%로 높이는 방안이다. 최종 설문조사에 참여한 492명의 시민대표 중 56%는 모수개혁 1안을 선택했다.

반면 다른 선택지인 ‘모수개혁 2안’은 ‘더 내고 그대로 받기’로 요약할 수 있다. 현행 보험료율을 12%로 상향하고, 소득대체율은 40%를 유지하는 방안이다. 시민대표 중 42.6%는 모수개혁 2안을 선택했다.

앞서 여야는 지난 1월 연금개혁 공론화위원회 출범 당시 21대 국회 임기 내 연금개혁 완수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정당·당파를 떠나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그러나 여당은 당초 견지했던 입장과 다른 시민토론 결과에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태도로 돌아섰고, 야당은 추가 논의보다는 빠른 입법이 시급하며 압박에 나서면서 여야의 의견 차이는 좁혀질 좁혀지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 주호영 연금특위 위원장은 지난 1월 공론화위원회 출범 당시 5월 29일 만료되는 21대 국회 임기를 고려해 “여야가 함께 21대 국회에서 시급한 연금개혁을 마추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난 23일 시민토론회 결과를

놓고 “연금개혁은 미래 세대에게 불공정한 현실을 고치는 게 목표여야 하는데, 효과가 충분한 것인지 의문이다. 고갈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 자체가 미래 세대의 부담이자 동전의 앞뒷면”이라며 부정적인 견해로 돌아섰다.

연금특위 민주당 간사인 김성주 의원은 지난 24일 “(국민의힘은) 공론화위원회의 조사 결과가 나왔음에도 뚜렷한 의견 표명이 없고, 결과를 조금 더 내고 더 많이 받는 계약이라고 규정하고 있다”며 “국민의 뜻에 따라서 연금개혁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하는 의지가 있는지 의심

이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여야가 상반되는 입장으로 대립각을 세우면서 일각에서는 공론화위원회의 학습 및 토론 과정이 편파적이었다며 재투표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지난 24일 연금연구회는 입장문을 통해 “시민대표단이 학습한 내용에 핵심 정보들이 빠졌다”며 “대표단이 핵심내용을 알려주고 한 번 더 투표하게 하자”고 주장했다.

이에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같은 날 성명서를 통해 “시민들이 만들어낸 속의민주주의의 성과가 훼손된 전대미문의 사건”이라며 “연금연구회에 공식적 사과를 요구한다”고 즉각 반발했다.

여야는 공론화위원회가 이달 내에 조사 결과를 토대로 보고서를 제출하면 입법 추진에 앞서 협의를 돌입한다. 여야 차이가 뚜렷해 절차에 난항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

여야가 합의에 실패해 21대 국회 임기가 끝나는 오는 5월 29일까지 입법 과정을 마치지 못할 경우 연금개혁 과정은 22대 국회로 넘어간다.

/안승진 기자 asj1231@metroseoul.co.kr

여신업계 ‘금융사고 예방’ 내부통제 강화

금감원, 관련 모범규준 제·개정 순환근무·명령휴가제 도입 실시

신용카드 등 여신전문업계에서 발생하는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기준이 강화된다.

금융감독원은 여전업권과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여전업권 내부통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이의 일환으로 내부통제 관련 모범규준의 제·개정을 완료했다고 25일 밝혔다.

금감원 측은 “여전사는 다수 이해관계자와 제휴하는 업무가 많고, 중고차·PF대출 등 고위험업무 비중이 높다”며 “IT·결제업무의 중요성도 높아 내부통제 강화 필요성 지속 제기됨에 따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이 제시한 모범규준으로는 ▲ 내부통제기준 마련 ▲ 중고차금융 및 카

드사 제휴업체 관리 강화 ▲ 순환근무·명령휴가제 도입 ▲ 준법감시체제 강화 등이 있으며, 여전업권 금융사고 감축을 위한 내용을 포함했다.

먼저 금감원은 ‘표준내부통제기준’을 제정했다. 이는 여전업권의 ‘자배구조법’과 관련한 것으로, 법령을 준수하고 내부통제조직의 역할 정립 등을 위한 표준기준이다.

구체적으로는 내부통제기준과 관련 이사회와 대표이사, 내부통제위원회, 준법감시인의 권한 및 역할 등이 규정된다. 또 준법감시인의 임면과 지위, 임기, 독립성 보장, 내부통제기준 위반시 시정·개선 등 처리근거를 구체화했다. 아울러 임직원의 겸직현황 주기적 관리,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합박자금조달 행위 방지, 이해상충 발생 우려 업무 관리 등도 마련했다.

/허정운 기자 zelkova@

금감원은 중고차금융 영업관행 개선 가이드라인도 개정하고 사후관리도 강화한다. 여전사는 대출금 제3자 입금 문자서비스 등을 통해 대출 주요 내용을 고객에게 안내해야 한다. 대출 취급 후 일정 기간(중고 승용차 10일, 중고 상용차 25일) 내에 차량 명의 이전 및 근저당 설정 여부를 확인하고, 명의이전 여부에 대한 주기적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이 밖에도 금감원은 제휴서비스업체 선정·관리에 관한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업권 표준규정을 만들었다. 이를 통해 제휴업체 후·폐업 등에 따른 소비자 보호를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직무분리 철저, 순환근무·명령휴가제 도입, 대출 관리 강화 등 사고 예방활동의 실효성 제고에도 나선다.

/안상미 기자 smahn1@

캐롯손보, 노하우로 올해 흑자전환 ‘청신호’

인니서 BBI솔루션 구축사업 수주 ‘비보험 수익’ 기반 창출에 큰 의미

캐롯손해보험이 자동차보험 출시 4년 만에 새로운 도약을 모색하고 있다. 그동안 쌓아올린 노하우를 바탕으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해 그동안의 적자 고리를 끊고 올해는 흑자전환에 나서겠다는 포부다.

2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2월 캐롯손해보험은 인도네시아 리포손해보험의 BBI(운전습관 연동형 보험) 솔루션 구축 사업을 수주했다.

이번 사업으로 캐롯손해보험의 내재화된 기술력과 데이터 역량이 해외에서 인정받았다는 평가를 얻는다. 또한 비보험 수익 기반을 창출해 냈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한다.

캐롯손해보험 관계자는 “인도네시아 BBI 솔루션 구축과 같이 비보험 사업을 수주한 것처럼 디지털 보험사로서 쌓고 있는 노하우를 판매하는 방식으로도 다양한 수익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3일에는 ‘할인이 쌓이는 굿드라이브 특약’을 선보였다. 이번 특약은 기술력과 데이터에 기반한 인슈어테크 기업으로서 쌓아온 노하우를 집대성했다.

기존 인기를 얻은 퍼마일 자동차보험은 탄 주행거리만큼 보험료를 계산하는 합리적인 방식으로 출시 4년만에 누적 가입 170만건을 돌파한 바 있다. 이번 특약은 기본 할인과 함께 안전운전 할인까지 제공해 차량 운행이 많은 고객들 대상으로도 경쟁력을 대폭 강화했다.

캐롯손해보험은 이번 특약이 퍼마일 이후 다시 한번 자동차보험 시장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했다. 향후 캐롯손해보험의 미래를 가능할 수 있는 의미를 가



문효일 캐롯손해보험 대표이사. /캐롯손해보험

진다는 분석이다.

캐롯손해보험 관계자는 “이전에는 운전을 조금 하면 보험료를 적게 내는 고객들을 주로 타깃으로 해왔다면 이번 특약은 주행거리가 많더라도 안전운전을 하는 고객들의 가격 경쟁력까지 확대했다”며 “고객들의 안전을 장려하면서 사고율을 줄일 수 있고 궁극적으로 손해를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캐롯손해보험이 최근 새로운 도약에 나선 이유로는 흑자전환이 꼽힌다. 지난해 캐롯손해보험은 지난해 760억원의 순손실을 기록했다. 2022년(841억원) 대비 약 10% 개선했으나 출범 후 지속 적자를 보고 있다. 자동차보험 손해도 100%를 넘나들면서 고전하고 있다.

올해는 흑자전환 드라이브를 위해 그동안 쌓아온 노하우를 집대성한 사업들을 바탕으로 신생 산업군인 디지털 보험에서 규모의 경제 실현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캐롯손해보험 관계자는 “올해 전략은 규모의 경제를 실현해 효율성 등 모든 지표들의 수치를 높이는 데 있다”며 “포화 산업인 보험에 신규 플레이어가 등장한 만큼 시장의 변화를 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김주형 기자 gh471@

내달 ‘여주역자이 헤리티지’ 769가구 분양

GS건설, 여주 첫 자이 브랜드

GS건설의 아파트 브랜드 ‘자이(Xi)’가 경기 여주지역에서 첫 선을 보이면서 수요자는 물론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4일 GS건설에 따르면 오는 5월 경기 여주시 교통에서 ‘여주역자이 헤리티지’ 769가구를 분양한다. 여주에서 분양하는 첫 ‘자이’ 브랜드 아파트며, 여주에서 3년 만에 선보이는 새 아파트다.

여주역세권에 들어서는 이 아파트는 지하 2층~지상 27층, 8개 동에 전용 면적 기준 ▲59㎡A 85세대 ▲59㎡B 81

세대 ▲84㎡A 249세대 ▲84㎡B 248세대 ▲99㎡A 52세대 ▲99㎡B 52세대 ▲136㎡P(펜트하우스) 2세대 등으로 구성된다. 실수요자가 선호하는 85㎡ 이하 중소형이 663세대로 전체의 86%를 차지한다. 중대형인 99㎡도 104세대로 소비자 선택 폭을 넓혔다.

‘여주역자이 헤리티지’는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해 남향 위주로 단지를 배치했다. 4-베이(Bay) 이상 판상형 평면구조로 공간감과 일조량을 극대화했다. 일부 세대는 3면 발코니가 적용되며, 대형 드레스룸 등과 같은 차별화된 공간도 선보인다.

조경설계는 최신 트렌드를 반영했



‘여주역자이 헤리티지’ 투시도. /GS건설

다. 수경시설과 함께 조성된 단지 중앙의 고급스러운 휴게공간인 엘리시안가든, 다목적공간으로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는 테마형어린이놀이장 자이런그라운드 등 다양한 조경 및 휴게공간이 마련된다.

/안상미 기자 smahn1@

1분기 실적 발표

LG전자, 가전·전장 ‘힐힐’... 5년 연속 영업이익 1조 돌파

매출 21조959억... 1분기 신기록
글로벌 경기불황에도 질적 성장
“로봇 등 신사업 조기 전격화 노력”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LG 트윈타워 전경.

LG전자가 1분기 계절적 비수기에도 불구하고 생활가전과 미래 성장 사업인 전장(차량용 전기·전자장비) 부문에서 역대급 매출을 올리며 실적을 견인했다. 영업이익은 다소 줄었지만 1분기 기준 5년 연속 1조원을 넘겼다. LG전자는 올해 B2B 비중 확대와 온라인·구독 사업 강화 등으로 매출 성장 기회를 확보할 계획이다.

LG전자는 연결 기준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1조3354억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10.8% 감소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25일 공시했다. 1분기 매출은 21조959억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3.3% 증가했다. 역대 1분기 가운데 최대치다. 순이익은 5854억원으로 7.1% 늘었다.

LG전자 관계자는 “시장 내 경쟁 심화에 마케팅 등 자원투입이 늘어났음에도, 콘텐츠·서비스 플랫폼 사업이나 온라인브랜드숍을 통한 D2C(소비자직접판매) 확대 등이 수익 기여도를 높이며 질적 성장을 견인했다”고 밝혔다.

◆주력 생활가전 흑자전환

사업부문별로는 올해 1분기 주력인 생활가전(H&A) 사업이 매출 8조6075억원, 영업이익 9403억원을 기록했다.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7.2% 올라 전분기 통틀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영업이익은 역대 최대 이익을 낸 전년 1분기 1조152억원보다 7.4% 감소했으나, 전분기(1177억원 적자) 대비 흑자 전환했다.

LG전자는 최근 AI 가전을 ‘공감지능(Affectionate Intelligence) 가전’으로 재정의하는 전략을 펼치고 있다. 고객 라이프스타일에 맞춰 원하는

제품과 관리 등의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구독 사업도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냉난방공조(HVAC)나 빌트인 등 추가 성장 기회가 큰 B2B 사업 확장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전장을 담당하는 VS사업본부는 1분기 2조6619억원, 영업이익 520억원을 기록했다.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1.5% 올랐다. 그간 확보해 온 수주잔고가 점진적 매출성장으로 이어지고 있다. 신규 수주물량 및 거래선 대응을 위한 해외 생산지 구축 등 지속적인 투자가 이뤄지고 있음에도 매출 확대에 따른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며

안정적 수익성을 기록했다.

최근 전기차 수요 성장세가 다소 둔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있으나, 고부가 가치 전장부품의 수요는 지속 늘어나는 추세다. LG전자는 전장 사업에서 ‘차량용 인포테인먼트-전기차 파워트레인-램프’ 등으로 이어지는 균형 잡힌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있는 만큼, 이러한 시장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지속적인 매출 성장과 안정적 수익 기반을 확보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TV 사업을 담당하는 HE사업본부의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4.2% 증가한 3조4920억원을 기록했고 영업이익은 웹OS 콘텐츠·서비스 사업의 성장에 힘입어 1322억원을 기록하며 흑자 전환했다. 비즈니스솔루션(BS)사업 본부는 1분기 매출액 1조5755억원, 영업이익 128억원을 기록했다.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6.5% 늘었다.

◆전사 영업이익 5년 연속 1조...B2B 비중 등 신사업 확대

LG전자는 올해 1분기 전사 영업이익이 2020년 이후 5년 연속 1조원을 넘는 등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LG전자는 생활가전의 경우 물가와 국제 정세 불안 등 상황에서 효율적인

자원 투입과 원가 개선 활동을 통해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HVAC 중심의 B2B 비중 확대와 온라인·구독 사업 강화 등으로 매출 성장 기회를 확보할 계획이다.

TV 시장도 하반기부터 점진적인 수요 회복이 기대된다.

전장 사업도 전기차 수요 둔화 우려를 고부가가치 부품 수요 공약으로 극복한다는 전략이다. LG전자는 “전장 사업에서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전기차 파워트레인, 램프 등으로 이어지는 균형 잡힌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있는 만큼 지속적인 매출 성장과 안정적 수익 기반을 확보해 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BS사업도 고객 니즈에 맞춰 게이밍 특화 기능 등을 탑재해 성장하겠다는 방침이다.

LG전자 측은 “올레드(OLED) 디스플레이를 탑재한 전장 IT제품과 프리미엄발광다이오드(LED) 제품을 내놓을 것”이라며 “미래 성장을 위한 로봇·전기차 충전 등 유망 신사업의 조기 전격화 노력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현대차, 매출 40조 돌파... “8% 이상 수익성 유지”

하이브리드 모델 생산 확대 방침
분기 배당 2000원... 전년비 33% ↑

현대자동차가 글로벌 자동차 시장 경쟁력 확대를 위해 하이브리드 모델 생산 확대에 나선다.

현대차는 전 세계 자동차 시장이 전기차 판매량 부진 속에 하이브리드 차량이 인기몰이에 나서면서 현대차도 시장 대응을 위한 전략 변경에 나선 것이다. 실제 현대차는 올해 1분기 스포츠유틸리티차(SUV) 인기와 주요 하이브리드 모델의 판매 증가로 시장 역대 최대 매출을 기록했다.

25일 현대차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연결기준 실적을 잠정 집계한 결과 매출액 40조6585억원, 영업이익 3조



현대차 양재동 본사

5574억원을 기록했다. 1분기 실적은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은 7.6%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2.3% 감소했다. 순이익은 1년 전보다 1.3% 줄어든 3조3760억 원으로 집계됐다.

현대차의 1분기 판매는 아산공산 생산라인의 일시적 섀다운 영향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감소했지만, 북미와 인도 등 주요 지역에서 견조한 판매 성장세를 이어갔다.

현대차 관계자는 “고금리 지속과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환율 변동성 확대 등 경영 환경의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주요 해외 시장의 수요 확대에 따른 지속적인 판매 성장세에 8%이상의 안정적인 수익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대차는 글로벌 시장에서 100만 6767대를 판매했다. 이는 전년 동기와 비교해 1.5% 감소한 수치다.

국내 시장에서는 전년 동기 대비 16.3% 감소한 15만 9967대가 판매 됐

다. 하지만 신형 싼타페 하이브리드를 비롯한 하이브리드 모델의 판매 비중은 늘었다. 해외 시장에서는 신형 모델 투입 및 주요 라인업 상품성 개선과 함께 북미, 유럽, 인도 등 주요 시장 판매 호조로 전년 동기보다 1.9% 늘어난 84만 6800대가 팔렸다.

1분기 글로벌 친환경차 판매대수(상용 포함)는 하이브리드 라인업 강화에 따른 판매 견인 효과에도 전기차(EV) 수요 둔화 영향에 전년 동기 대비 4.8% 감소한 15만3519대가 판매됐다. 이중 EV는 4만5649대, 하이브리드는 9만 7734대로 집계됐다.

이에 현대차는 향후 전동화 전략을 추진하는 한편 하이브리드 모델 생산에도 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이승조 현대차 기획재경본부장(부사장)은 1분기 경영실적 컨퍼런스를 통해 “올해 10월 또는 연말 가동될 예정인 미국 조지아주 전기차 전용 공장 현대차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HMGMA)에서 하이브리드차를 생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HMGMA에서 전기차뿐만 아니라 하이브리드차를 생산할 수 있도록 공장 설비를 추가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현대차 관계자는 “전용 전기차 브랜드 ‘아이오닉’ 라인업 확대, 신규 하이브리드 모델 보강, SUV·고부가 가치 차종 중심의 믹스 개선으로 점유율 확대는 물론 수익성 방어에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대차는 주주 환원을 위해 1분기 배당금을 주당 2000원으로 결정했다. 이는 전년 분기 배당 1500원보다 33.3% 증가한 수준이다.

/양성운 기자 ysw@

최재원 “전기차 캐즘, 위기이자 기회... SK온 상장 반드시 성공할 것”

(SK온 수석부회장)

SK온 타운홀 미팅

원가, 기술 등 본원적 경쟁력 강조

“전동화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이자 정해진 미래다. 이를 위해 다양한 사업 역량을 단단히 갖춰야 한다.”

최재원 SK온 수석부회장이 이같이 말했다. 전기차 캐즘(수요 정체기)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원가, 기술, 제조 등 여러 분야 본원적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는 취지다.

25일 SK온에 따르면 최 수석부회장은 지난 24일 서울 종로구 관훈동 SK온

관훈사옥에서 ‘정해진 미래,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Envisioned future, Together we move forward)’를 주제로 구성원 대상 타운홀 미팅을 가졌다. 최 수석부회장 주재 타운홀 미팅은 지난 2021년 10월 독립 법인 출범 이후 지난해 4월에 이어 두 번째다.

미팅은 최 수석부회장 발표와 질의응답, 경영현황 공유 등이 진행됐다. 구성원 100여명이 현장 참석했으며 국내외에서 2000여 구성원이 온라인으로 참여했다.

최근 ‘전기차 캐즘(Chasm, 일시적 수요정체)’에 따른 배터리 산업 성장 둔

화에 대한 질문에 최 수석부회장은 “수요 관련 여러 우려가 있는 점은 잘 이해하고 있다”며 “중장기적으로 각국 환경 정책 및 연비 규제, 전기차 라인업 및 충전 인프라 확대 등으로 지속적 성장이 나타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캐즘은 누구보다 빠르게 성장한 SK온에게 위기이자 좋은 기회”라며 “수요 회복 시 글로벌 배터리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경영진과 구성원이 합심해 철저히 준비하자”고 당부했다.

최 수석부회장은 상장(IPO) 시점에 대해 “SK온 상장은 반드시 성공할 것”

이라며 “다만 구체적인 시기는 우리가 얼마나 성장할 준비를 갖췄는지, 거시 금융 환경은 어떠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 수석부회장은 이어 “캐즘을 극복하기 위해 원가 경쟁력, 연구개발, 생산 능력 등 제조업의 모든 역량이 중요하다”며 “어렵지만 우리는 한 마리 토끼가 아닌 최소 대여섯 마리의 토끼를 동시에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통상 제조업은 첫 5년은 손해가 나기 마련”이라고 전제한 최 수석부회장은 “SK온은 그 시기를 이겨내고 성공하



최재원 SK온 수석부회장이 지난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관훈동 SK온 관훈사옥에서 개최된 ‘정해진 미래,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타운홀 미팅을 진행하고 있다.

/SK온

는 극소수 기업이 될 수 있다고 확신한다”며 마무리했다.

/차현정 기자 hyeon@

HD현대, 1분기 영업익 7936억... “조선·정유 등 실적 견조”

매출 16.6조... 사업 전반서 ‘호실적’
조선·해양, 4분기 연속 흑자 달성
건설기계, 시장 침체여파에 하향세

HD현대주주력 사업인 조선과 정유업의 호황에 힘입어 올해 1분기 호실적을 기록했다.

HD현대는 연결 기준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7936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48.8%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25일 공시했다.

매출은 16조5144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1% 증가했으며 순이익은 5083억원으로 319% 늘었다. 정유와 전력기기 등 주요 사업 전반에서 견조한 실적을 거둔 가운데 조선 부문이 흑자 기조를 이어간 데 따른 것이다.

사업별로는 조선·해양부문의HD한국조선해양의 1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3.9% 증가한 5조5156억원을 달성했다. 친환경·고부가가치 선박의 매출이 실적에 반영되면서 작년 같은 기간보다 증가했다. 영업이익은 선별 수주에 따른 선가 상승분과 생산 안정화에 따른 비용 절감으로 0.6% 소폭 감소한 1602억원으로 4분기 연속 흑자를 기록했다.

HD한국조선해양의 자회사인 HD현대중공업은 전년 동기 대비 13.5% 늘어난 2조9877억원, HD현대미포는 10% 증가한 1조5593억원, HD현대삼호는 22.7% 오른 1조7056억원 매출을 거뒀다.



HD현대중공업 울산 조선소 도크에서 선박이 건조되는 모습.

/HD현대중공업

특히 HD현대삼호가 전년 동기 대비 223.6% 증가한 1864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하며 견조한 실적 흐름을 주도했다.

에너지 부문의 HD현대오일뱅크는 유가 및 정제마진 상승으로 1분기 매출 7조8788억원과 영업이익 3052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동기보다 각각 6.5%, 17.98% 증가한 수치다.

건설기계 부문의 HD현대사이트솔루션은 글로벌 건설기계 시장의 긴축 흐름으로 매출과 영업이익이 모두 하향세를 나타냈다. 매출은 전년 동기보다 7.2% 줄어든 2조2029억원, 영업이익은 29.7% 감소한 1629억원이다.

HD현대일렉트릭은 전력인프라 확대 추세에 힘입어 전년 동기 대비 40.9% 늘어난 매출 8010억원을 기록했고, 영업이익은 178.2% 증가한 1288억

원을 달성하며 영업이익률 16.1%를 기록했다.

HD현대마린솔루션은 친환경 규제 강화에 따른 선박 부품서비스 사업 호조와 디지털 제어 사업의 확대로 전년 동기보다 19.3% 늘어난 3830억 원의 매출을 달성했다. 영업이익은 13.2% 증가한 515억 원을 기록해 13.4%의 영업이익률을 남겼다.

HD현대 관계자는 “불확실한 경영 환경 속에서 선별 수주 전략과 맞춤형 영업전략을 통해 성장을 이어갈 수 있었다”며 “조선 부문에서 친환경 고부가가치 선박 수주가 지속되고 있고, 정유·전력기기 시황이 안정적인 흐름세를 보이고 있는 만큼 수익성 확대를 위한 노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성호 기자 ysw@metroseoul.co.kr

CJ대한통운, 로봇 ‘스팟’ 택배배송 실증

기아·현대건설 등과 로봇개 테스트

CJ대한통운이 택배 라스트마일(Last Mile)을 위한 배송로봇 도입을 위해 테스트를 한다.

분류·포킹 등 물류센터에서 이루어지는 작업뿐 아니라 최종 배송 단계까지 물류의 모든 단계에 걸쳐 첨단 기술을 적극 접목해 미래 물류기술 구현에 앞장선다는 계획이다.

CJ대한통운은 기아, 현대건설, 로봇 전문스타트업 다이아브와 함께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로봇개 ‘스팟(SPOT)’을 활용한 택배 라스트마일 로봇배송 실증 사업을 진행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실증 사업은 고객에게 마지막으로 상품이 전달되는 라스트마일 배송 단계에서 로보틱스 기술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해 진행했다.

실증 사업은 지난 17일부터 25일까지 경기 고양시에 위치한 ‘힐스테이트 라피아노 삼송’에서 진행됐다. CJ대한통운 택배기사가 차량에 스팟과 택배 상품을 상차해 배송지로 이동한 뒤 스팟과 택배 상품을 하차시키면 스팟이



CJ대한통운이 로봇 ‘스팟’을 활용한 택배배송 실증에 나서며 미래형 물류 서비스 구축에 나섰다.

/뉴시스

적재함에 택배를 실은 채 고객의 집 앞까지 물품을 배송하는 방식이다. 배송 완료 후 스팟은 차량으로 복귀해 남은 택배를 실은 후 추가 배송을 이어간다.

CJ대한통운은 실증 사업을 위해 필요한 택배차량과 물량 등 제한 환경을 제공했으며, 실제 택배 배송이 안정적인 고객에게 전해지며 성공적으로 테스트를 마쳤다. 이번 테스트를 통해 CJ대한통운은 실제 배송 환경에서 로봇 도입 시 효율성과 개선점 등 데이터를 수집하고 향후 라스트마일 서비스 고도화에 활용할 예정이다.

/김승호 기자 bada@

SK C&C, AI·RPA 결합 ‘금융 AI 인턴’ 선보

자산 관리 등 복잡한 업무도 자동화

SK C&C가 26일 인공지능(AI)과 로봇프로세스자동화(RPA)를 결합한 금융사맞춤형 하이퍼오토메이션(초자동화)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선보였다. 특히 금융사 영업점 직원에 특화했다.

SK C&C는 최근 은행·카드사·보험사·증권사·캐피탈 등 다양한 금융사별 업무 특성에 최적화된 ‘금융 AI 인턴’을 개발했다. 기업 특화 AI 솔루션 ‘솔루어(Solur)’와 종합 디지털 RPA 플랫폼 ‘드리고(DREAGO)’ 등 AI 디지털 전환(DX) 플랫폼을 결합했다.

SK C&C는 다양한 디지털 자동화 기술들을 융합해 업무 프로세스 전반에 걸친 자동화 수준을 높임으로써 업무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비용 절감 효과를 거두는 하이퍼오토메이션

을 금융 분야부터 실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금융 AI 인턴’은 모바일 창구부터 자산 관리, 재무 관리와 같은 금융 공통 업무 영역뿐만 아니라 ▲은행 여·수신 및 외환 업무 ▲카드 발급, 대금 정산 업무 ▲보험 대면 채널, 계약 관리, 보험금 청구 업무 등과 같은 금융 분야별 영업점 업무 특성을 습득했다.

‘금융 AI 인턴’은 복잡한 금융 업무를 직접 처리해 영업점 직원들이 갖는 업무 부담을 줄여주고 처리 시간을 단축시킨다.

이전 국내 금융사들이 개발, 활용한 RPA봇 등은 복잡한 금융 업무에는 한계가 있었다. RPA가 늘어나면서 여러 RPA 봇 중 어떤 봇을 선택해 구동해야 할지 결정하는 것도 업무 처리에 어려움을 더했다.

/김서현 기자

SKT ‘AI 경영시스템’ 획득 “글로벌 경쟁력 강화”

SK텔레콤이 국내 통신사 최초로 인공지능(AI) 경영시스템 국제표준 ‘ISO/IEC 42001’ 인증을 획득했다고 25일 밝혔다.

‘ISO/IEC 42001’은 국제표준화기구(ISO)와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가 공동으로 제정한 인공지능 경영시스템 관련 글로벌 표준이다. 기업과 조직이 윤리적 책임을 바탕으로 AI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부 평가 항목은 ▲AI 방침 ▲AI 리스크 평가 ▲AI 리스크 처리 ▲AI 영향 평가 ▲AI 윤리 준수 및 규제 대응 ▲AI 관리 과정의 투명성 등이다.

SK텔레콤은 이번 인증 획득을 통해 신뢰성과 안전성을 기반으로 AI 리스크 관리를 효과적으로 시행하고 있음을 국제적으로 인정 받았다고 설명했다.

특히 SK텔레콤 AI 경영시스템을 통신 산업뿐만 아니라 다양한 산업 분야에 적용해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 강화와 더불어 신뢰받는 글로벌 AI컴퍼니로 도약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라인’ 개인정보 유출 후폭풍 日 “네이버 지분 팔고 나가”

日 정부, ‘라인’ 네이버 지분 청산 요구
개인정보 유출 후 “의존도 순차적 축소”

라인야후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 후폭풍이 불며 네이버의 경영권에 빨간 불이 들어왔다.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빌미로 일본 정부가 라인야후 측에 자국 기업인 소프트뱅크 측 지분 확대를 요구하고 나서면서 오는 7월1일을 시한으로 구체적 방안을 내놓을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일본 마이니치에 따르면 일본 총무성은 지난 17일 메신저 앱(APP) 라인(LINE)의 개인정보 유출 문제로 라인야후에 두번째 행정지도를 내리면서 네이버 지분 판매를 요구하며 이를 7월1일까지 진척사항을 보고하도록 했다. 첫 번째 행정지도는 지난 3월로, 정보유출 후 네이버로 접속된 사실이 이 유가 됐다. 총무성은 네이버의 지분 전반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하고 자국 기업인 소프트뱅크에 지분 추가 확보를 요구했다. 라인야후는 네이버의 관계사로 일본 소프트뱅크와 함께 각각 50.0%씩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합작한 A홀딩스 산하 기업이다. 네이버가 개발한 메신저 라인과 소프트뱅크가 운영 중인 ‘야후(YAHOO)’를 서비스 한다. 현재 라인은 일본에서 한국의 카카오

톡을 달성하며 영업이익률 16.1%를 기록했다. HD현대마린솔루션은 친환경 규제 강화에 따른 선박 부품서비스 사업 호조와 디지털 제어 사업의 확대로 전년 동기보다 19.3% 늘어난 3830억 원의 매출을 달성했다. 영업이익은 13.2% 증가한 515억 원을 기록해 13.4%의 영업이익률을 남겼다. HD현대 관계자는 “불확실한 경영 환경 속에서 선별 수주 전략과 맞춤형 영업전략을 통해 성장을 이어갈 수 있었다”며 “조선 부문에서 친환경 고부가가치 선박 수주가 지속되고 있고, 정유·전력기기 시황이 안정적인 흐름세를 보이고 있는 만큼 수익성 확대를 위한 노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에서 라인(LINE)은 9600만 명의 이용자를 확보한 ‘국민’ 메신저다. 네이버와 소프트뱅크가 50%씩 각각 지분을 소유한 A홀딩스 산하 라인야후가 서비스 중이다.

/라인

에 견주어지는 수준으로 전국민이 사용하는 메신저 앱이다. 지분 상실에 따른 네이버의 손해가 막심할 수밖에 없다.

일본 총무성의 요구에 라인 야후는 “네이버에 대한 의존도를 순차적으로 축소하고 지분 청산할 예정”이라며 “2026년 12월 시스템을 완전 분리하겠다”고 밝혔으나 총무성 측은 구체적인 방안을 요구하고 나섰다.

개인정보 유출 사태의 엄중함과 별개로 IT업계 관계자들은 지분 정리 요구 조치는 “이례적”이라며 놀라고 있다. 앞서 미국 하원이 바이트댄스가 서비스하는 틱톡(TikTok)의 매각을 요구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사례는 대중(對中) 견제를 위한 정치적 행보로 풀이할 수 있었던 점과 달리 이번 사태는 정치적이기 보다는 자국 기업에 대한 보호주의적 태도로 분석된다.

/김서현 기자 seoh@

을 금융 분야부터 실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SK C&C는 다양한 디지털 자동화 기술들을 융합해 업무 프로세스 전반에 걸친 자동화 수준을 높임으로써 업무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비용 절감 효과를 거두는 하이퍼오토메이션

를 직접 처리해 영업점 직원들이 갖는 업무 부담을 줄여주고 처리 시간을 단축시킨다.

이전 국내 금융사들이 개발, 활용한 RPA봇 등은 복잡한 금융 업무에는 한계가 있었다. RPA가 늘어나면서 여러 RPA 봇 중 어떤 봇을 선택해 구동해야 할지 결정하는 것도 업무 처리에 어려움을 더했다.

/김서현 기자

삼성, 여름 겨냥 ‘무풍 에어컨’ 생산 풀가동

AI 절약모드, 에너지 사용량 30% 절약

삼성전자가 여름을 앞두고 무풍 에어컨 생산라인 풀가동해 국내 에어컨 시장 공략 강화에 나섰다.

25일 삼성전자에 따르면 2016년 세계 최초로 선보인 무풍에어컨은 누적 판매 1000만대 흥행을 이어가고 있으며, 흥행 여세를 몰아 올해 2월 2024년형 에어컨 신제품을 출시했다.

2024년형 ‘비스포크 무풍에어컨 켈

러리’ 스탠드형은 전 모델이 에너지 소비효율 1~2등급을 획득했다. 스마트싱스에서 인공지능(AI) 절약 모드를 선택하면 에너지 사용량을 30%까지 절약할 수 있다.

빅스비를 적용해 리모컨 없이 음성 명령으로 다양한 기능을 손쉽게 실행할 수 있다. 에어컨을 켜고 끄거나 온도를 조절하는 등 간단한 음성 제어는 와이파이 연결 없이도 이용할 수 있다.

/구남영 기자

1 the hilt

스크리밍 이글의 또 다른 도전!
더 힐트, 당신의 마음을 꿰뚫다.



더 힐트 이스테이트 샤도네이

NARA CELLAR

*지나친 음주는 뇌졸중, 기억력 손상이나 치매를 유발합니다. 임신 중 음주는 기형아 출생 위험을 높입니다.

금감원, '공매도 방지 전산시스템' 초안 공개

개인투자자 “시스템 완비 전까지 공매도 재개하면 안 돼”

무자비 불법 공매도 원천 차단
기관투자자, 자체 시스템 구축해야
업계·시장 의견 수렴해 완성도 ↑

금융당국이 코리아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의 원인 중 하나로 꼽히는 불법 공매도 근절을 위해 '공매도 방지 전산시스템'을 도입할 방침이다. 개인 투자자 대표들은 전산시스템 도입을 환영하면서도 공매도 재개 전 전산 시스템 완비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융감독원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콘퍼런스홀에서 이복현 금감원장 주재로 유관기관과 개인투자자 패널, 금융투자업계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인투자자와 함께하는 열린 토론(2차)'을 개최했다.

금융당국은 이날 무차입 불법 공매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전산시스템 초안을 전반적으로 소개했다. 해당 시스템은 모든 기관투자자의 주문 처리 과정을 전산화하고, 이를 이중 삼중으로 검증하는 게 골자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5일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개인투자자와 함께하는 열린 토론(2차)'에서 발언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모든 기관투자자는 자체적으로 매도 가능한 잔고를 전산 관리하는 내부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기관투자자는 전일 잔고와 당일 실시간 매매에 따른 잔고를 산정하고, 차입을 확정하면 이를 실시간 잔고에 반영해야 한다. 보유 수량이 부족할 때는 차입이 승인되기 전까지 공매도 주문이 이뤄지지 않는다. 전산시스템은 기관투자자의 잔고

변동을 실시간으로 집계하고, 잔고를 초과한 매도에 대해서는 자동 차단한다. 기관의 주문이 이뤄지고 나면 불법 공매도 중앙 차단 시스템인 'NSDS(Naked Short Selling Detecting System)'가 모든 주문 내역에 대한 재검증을 실시한다.

이는 공매도 잔고가 발행량의 0.01% 또는 10억원 이상인 기관(외국계 21개·

국내 78개사)을 대상으로 한다.

이 원장은 "기술적·전산적으로(불법 공매도를) 막는 방법도 있고, 주문을 내는 기관 내지는 증권사들에(불법 공매도 차단)의무가 부과되면 고의든 과실이든 책임이 따른다"며 "전산적 방법과 규범적 방법이 결합해 사전적으로 불법공매도를 차단하는 생태계를 구성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제재 효과를 기대했다.

다만, 이 원장은 이날 공개한 전자시스템 구조는 초안이라고 말하며 업계와 시장, 개인투자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완성도를 높여야 한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이날 토론에 참석한 개인투자자들은 금감원이 제시한 불법 공매도 금지시스템이 완비되기 전까지는 공매도를 재개하면 안 된다고 입을 모았다.

이상목 소액주주 플랫폼 액티브 대표는 "전산 시스템이 완비되기 전 공매도 재개는 불가능하다"며 "전산 시스템 완비에 집중해 달라"고 언급했다. 이에 이 원장은 "금융위원회를 중심으로 공매도 전산화 방안이 얼마나 빨리 마련될 수

있는지, 법 개정이 필요한지 내부적으로 검토 중인 만큼 지금 단계에서 재개 시점을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다"고 답했다.

이 밖에도 토론에서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주장에 힘이 실렸다. 토론에 참여한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는 "수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금투세에 반대한다"며 "선진국 수준의 금융 환경을 만든 뒤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도 "금투세를 폐지하겠다는 정부 입장은 변함이 없다"며 항간에 언급되는 '금투세 유예'는 "비겁한 결정"이라며 비판했다. 이어 "그간 부동산 시장에 지나치게 의존했던 경제 구조의 미래를 자본시장에서 찾을 수 있도록 어떤 방안이 필요한지 생각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22대 국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 전향적으로, 국민들을 위한 민생 정책을 중심으로 한 번 생각해 주십사 하는 게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덧붙였다.

/허정운 기자 zelkova@metroseoul.co.kr

“펀드 1000兆, 언제든 붕괴될 수도… 관심·지원 필요”

국내 펀드 설정액 1003.4兆 집계
대규모 자금 유입에 나타난 현상
지난달 0.2% 역성장 기조 보여

국내 펀드시장이 순자산총액, 설정액 1000조 시대를 맞이한 가운데, 지난 달에는 역성장 기조를 보이면서 펀드시장의 제도약을 위한 이해관계자들의 관심이 당부되고 있다. 대규모 자금 유입이라는 이벤트적 요인이 발생했던 만큼 설정액 1000조 붕괴 가능성도 존재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25일 신영증권 보고서에 따르면 이달 18일 기준 국내 펀드 설정액은 1003조 4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순자산총액의 경우에는 지난 1월 5일 1000조원을 돌파한 뒤 유지되고 있는 상태다.

하지만 지난 3월에는 역성장 기조를 보이기도 했다. 오광영 신영증권 연구원은 "국내 펀드시장 전체 설정액은 3월 한 달 동안 부동산형, 재간접형, 특별자산형 등의 대부분의 유형이 증가를 보였으나머니마켓펀드(MMF)에서 대규모 자금이 유출된 영향으로 총 2조5500억원이 감소해 전월 말 대비 0.2% 역성장한 약 979조9000억원을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MMF 설정액은 3월 들어 분기 말 자금 수요와 법인 자금 수요 등으로 직전 달 대비 12조4000억원 줄어든 188조6000억원을 기록했다.

국내 펀드시장에서는 사모펀드의 성장세가 특히 두드러진다. 2016년 9월 처

음으로 공모펀드 설정액을 추월한 사모펀드는 지난 18일 기준 전체 설정액 중 60.0%(608조2000억원)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공모펀드가 39.4%(395조 2000억원)인 것과 대비해 21.2% 높은 수준이다. 10년 전인 2014년까지만 해도 공모펀드가 198조원, 사모펀드가 176조원으로 공모펀드가 소폭 앞섰지만 점점 격차가 벌어진 모습이다.

오 연구원은 "국내 펀드시장이 설정액 1000조원대를 돌파한 것은 최근 MMF와 채권형 등으로 대규모 자금 유입이 이어지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언제든 1000조가 다시 붕괴될 수도 있다"며 "국내 펀드시장이 제도약을 위해서는 정부 당국과 시장 참여자, 투자자 모두

의 국내 펀드시장에 대한 관심과 도전, 지원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사모펀드는 상대적으로 규제에서 자유롭다는 이점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투자전략으로 사용된다. 다만 라임·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원금 손실 사태가 발생하면서 사모펀드의 문턱도 높아졌다. 전문투자자가 아닌 일반투자자가 사모펀드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최소 3억원의 현금을 보유해야 한다. 사실상 개미(개인 투자자)들에게는 닫혀 있는 문으로 보여 펀드시장 내 존재감이 낮아지는 추세다.

금융위기가 발생한 2008년 9월 당시 개인 투자자의 비중은 국내 펀드시장에서 57.5%를 차지하며 판매 잔고는 192

조3000억원에 달했다. 하지만 올해 2월 말 기준으로는 펀드시장 성장세와 반대로 개인 투자자의 판매 잔고는 오히려 80조6000억원으로 감소했다. 국내 펀드시장에서 개인 투자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9.6%로 10%를 밑도는 상황이다.

다만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사모펀드가 펀드시장의 성장세를 주도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펀드 산업 자체의 성장이 더 큰 의미를 가진다"며 "일시적인 하방 압력이 있을 수는 있지만 꾸준한 성장세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고, 자산관리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펀드 산업은 오름세를 지속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그는 "공모펀드의 복잡한 제도를 개선하고 마이너스 수익에도 소득세가 부과되는 사례 등을 살펴 정비해 줄 필요성은 있다"고 제언했다.

/신하은 기자 godhe@metroseoul.co.kr

국내증시 변동성에 단기 금융상품 ‘인기’

투자자 예탁금, 이달 초비 6% 줄어
이탈 자금 MMF·CMA 등으로 이동

최근 국내 증시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개인투자자들은 주식 투자보다는 머니마켓펀드(MMF)·자산관리계좌(CMA) 등 단기 금융상품에 눈을 돌리고 있다.

25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23일 증시 대기성 자금인 투자자 예탁금은 55조8653억원으로 이달 초(59조 6299억원) 대비 약 6% 줄어들었다.

증시의 상승세와 함께 투자자에탁금은 지난달 초 57조원으로 올라섰고, 이달 1일에는 59조6299억원으로 60조원에 육박했다. 하지만 금리 인하 기대 후퇴, 중동 전쟁 리스크, 고환율 등으로 이달 들어 코스피 지수가 4%, 코스닥

지수가 6%가량 급락하자 빠르게 축소됐다.

증시에서 이탈한 자금은 MMF·CMA 등 단기 상품으로 이동하고 있다. 실제로 연초 15조2000억원대 수준이었던 개인 MMF 설정액은 23일 기준 16조 7162억원으로 연중 최고치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개인 CMA 잔고 역시 65조9045억원으로 올해 초(63조4806억원)보다 3.82% 늘었다.

MMF와 CMA는 입출금이 자유롭고, 하루만 맡겨도 이자가 나오는 초단기 투자상품이다. MMF는 증권사가 고객들의 자금을 모은 뒤 기업어음(CP)이나 양도성 예금증서(CD)와 같은 단기 금융상품에 투자한다. CMA도 증권사가 고객의 예탁금으로 단기금융상품에

투자하고 수익을 돌려주는 수시입출식 계좌다. 박유안 KB증권 연구원은 "기준금리 인하 기대 후퇴 등 금융시장의 불확실성 지속으로 '장기자금 운용'보다 새로운 투자처가 나타나면 빠르게 대응하기 위한 '단기자금 운용' 수요가 증가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국내 증시의 불확실성이 이어지고 있어 당분간 투자자들은 관망세를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증권가에서는 단기적으로 증시 조정이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하면서도 현시점은 주식 비중을 확대할 시기라고 분석했다.

강현기 DB금융투자 연구원은 "뚜렷한 반등이 나타나는 시기는 5월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미국의 주거비가 내려갔다는 지표가 나오면 물가가 떨어지면서 증시의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원관희 기자 wk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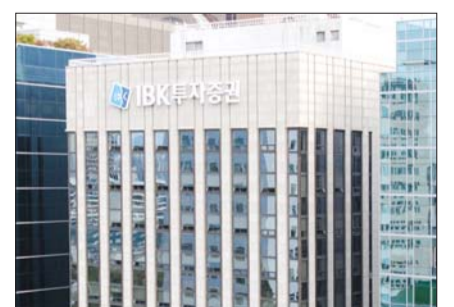
IBK투자증권, 'ESG 위원회' 신설

협의회서 재정비... 신사업 발굴 주력

IBK투자증권은 지난 2021년부터 운영해 온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협의회'를 재정비해 이사회 산하의 ESG 위원회로 격상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ESG위원회신설을 통해 IBK투자증권은 독자적인 ESG 경영체계 내재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ESG 관련 신사업 발굴에 힘쓸 방침이다. 특히 ▲친환경 기반 마련 ▲사회적 책임 강화 ▲청렴문화 확립을 추진 과제로 설정하고 친환경 경영체계 구축과 녹색금융 확대, 실질적인 사회공헌 활동 등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녹색금융의 경우 지난 2021년 탄소금융부를 설치해 사업을 준비해 왔다. 지



IBK투자증권 본사. /IBK투자증권

난해 서정학 대표이사 취임 후에는 더욱 적극적인 사업 발굴로 베트남 컨터시의 왕겨 바이오매스 발전 및 소재화 사업에 참여해 탄소배출권 100만 톤(t) 확보 계약을 성사했다.

사회공헌 분야에서는 모든 사회취약계층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활동을 모색해 진행할 예정이다. /원관희 기자

1분기 실적 발표

포스코홀딩스 “연매출 78조 목표”

전년대비 매출·영업이익 하락
철강 등 주력사업 경쟁력 강화
차세대 소재 조기 상업화 주력



서울 강남구 포스코센터 /포스코홀딩스

포스코홀딩스가 1분기 주력 사업의 부진에 따른 실적 위축에도 과감한 연간 매출 목표를 발표했다.

포스코홀딩스는 25일 올 1분기 연결기준매출 18조520억원, 영업이익 5830억원, 순이익 6090억원을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6.9%, 17.3% 감소했다. 전분기 대비 매출액은 3.3% 감소한 반면 영업이익은 91.8% 증가했다고 밝혔다.

전분기 대비 영업이익의 증가는 철강과 인프라부분은 경기침체 지속으로 전분기와 비슷한 영업이익 수준을 유지한 반면 이차전지소재부분에서 지난 분기 재고평가가 환입효과가 포함됐기 때문이다.

포스코홀딩스는 올해 연결 재무목표로 매출액은 78조원, 투자예산은 10조8000억원으로 계획했다.

포스코홀딩스는 글로벌 경기부진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사업별 본원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체질개선 노력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철강사업부에서 글로벌 경쟁력 강화가 목표다. 지난 2019년 국내최초 등대공장으로 선정된 바 있는 포스코 스마트팩토리를 AI가 결합된 인텔리전트 팩토리로 한단계 발전시

키고, 경제적 관점의 저탄소 생산체제로 전환을 통해 초격차 수준의 제조 및 원가경쟁력을 확보한다는 전략이다.

이차전지소재사업에서는 글로벌 이차전지소재 원료가격 하락에 따라 업스트림 단계에서 리튬 등 우량자원 확보에 중점을 둔 장기적으로 성장성과 수익성의 기반을 확보한다는 전략이다. 또 R&D기반의 혁신공정개발, 고객과 전략적 협력 및 우량기업 M&A 등을 통해 사업 확장방식에 다변화 및 전고체 등 차세대 소재의 조기 상업화에 주력한다.

이와 함께 글로벌 전기차 시장 수요 정체기인 캐즘을 반영해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등 일부 사업에 대한 투자도 합리적인 시점으로 결정해 사업전략의 질적 내실화를 다져 향후 시장변화에 발빠르게 대처하며 시장이 회복될 때 사업성과를 극대화 할 방침이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LG엔솔, 어닝쇼크... 영업이익 75% ↓

매출 6.1조, 영업이익 1573억
“생산시설 확대 등 미래 투자”

LG에너지솔루션의 1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75.2% 감소했다.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첨단세액공제(AMPC) 수혜분을 제외하면 사실상 적자다.

LG에너지솔루션이 25일 실적설명회에서 올해 1분기 매출 6조1287억원, 영업이익 1573억원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매출은 전년 동기(8조7471억원) 대비 29.9%, 전분기(8조14억원) 대비 23.4% 감소했으며,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6332억원) 대비 75.2%, 전분기(3382억원) 대비 53.5% 감소했다.

LG에너지솔루션 이창실 CFO(최고재무책임자) 부사장은 “전략 고객 수요에 적극 대응하며 전기차용 원통형 배터리가 두 자릿수 매출 성장을

달성했으나 전방 시장 수요 둔화, 메탈 가격 하락분 평가 반영 등의 요인으로 전체 매출은 전분기 대비 23% 감소했다”라며 “손익 또한 시장 수요 위축에 따른 가동률 조정 등 고정비 부담 증가, 메탈가 하락으로 인한 원재료 투입 시차(Lagging) 효과에 따라 전분기 대비 하락했다”고 밝혔다.

이번 LG에너지솔루션 실적에는 미국 IRA에 따른 세액공제 혜택인 ‘텍스 크레딧’이 1889억원이 포함됐다. 텍스 크레딧을 제외한 LG에너지솔루션 영업손실은 316억원이다.

LG에너지솔루션은 올해 1분기 어려운 시장환경 속에서도 생산시설 확대 등 미래 준비를 위한 투자를 지속했다고 설명했다.

1분기 본격 가동을 시작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미국 테네시 GM 합작 2공장이 대표적이다. LG에너지솔루션은 이 공장의 생산능력을 50G

Wh(기가와트시)까지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며 생산된 배터리는 GM의 3세대 배터리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신규 전기차에 탑재될 예정이다.

미국 내 두번째 단독 생산 공장인 애리조나 공장도 본격적인 착공에 들어갔다. 애리조나 공장은 북미지역 첫 원통형 공장이자, ESS(에너지저장장치) 첫 전용 공장으로 차세대 원통형 배터리로 각광받는 46시리즈와 LFP 기반 ESS 생산을 통해 북미 시장에서 기술 리더십을 공고히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신사업 관련 다양한 성과도 거뒀다. 지난 3월 웰컴 테크놀로지와 함께 첨단 BMS 진단 솔루션 개발 협력에 협조했고, 사내 독립기업 쿠루(KooRoo)도 서울 지역에 200여 개의 Battery Swapping Station (배터리스와핑 스테이션)을 설치하는 등 사업을 본격화했다. /차현정 기자 hyeon@

포스코퓨처엠, 흑자전환 성공... 영업이익 379억

양·음극재 판매량 증가

포스코퓨처엠이 양·음극재 판매량 증가에 힘입어 분기 기준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

포스코퓨처엠은 1분기 연결기준 매출 1조 1384억원, 영업이익 379억원을 기록했다고 25일 밝혔다.

전방시장의 수요 정체로 전반적인 제품가격이 하락했으나 생산안정화와 공급량 증대, 재고평가손실 환입으로 흑자로 돌아선 것이다.

배터리소재 사업은 리튬, 니켈 등 주요 메탈가격의 약세로 양극재 판매가가 전분기 대비 하락했으나 고성능 전기차용 단결정 양극재의 수출 개선과 함께 판매량이 증가했다. 음극재도 생산 및 판매가 증가해 수익성이 개선됐다. 또한 지난 해 4분기에 평가손실로 인식했던 재고의 평가손실 환입이 467억원 반영되면서 매출과 영업이익이 각각 7817억원과 251억원을 기록했다.

기초소재 사업은 지난해 4분기 유

가 약세 영향으로 화성제품의 판매가가 하락했지만 내화물 판매량 증가로 매출과 영업이익 각각 3567억원과 128억원을 기록했다.

포스코퓨처엠은 지난 2023년 3월 국내 최초로 NCMA 하이니켈 단결정 양극재 양산·공급에 나선 뒤로 수출개선에 집중하고 있다. 단결정 양극재 전용으로 설계된 포항 공장의 생산도 본격화되면서 수익성이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차현정 기자



오영주 중기부 장관, 재외공관장 간담회

외교관 출신인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대한민국 중소기업·스타트업의 해외 진출, 신시장 개척을 지원키 위한 ‘외교력’이 더욱 구체화되고 있다. 중기부와 외교부는 25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조찬을 겸해 ‘다기가는 경제·민생외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재외공관장 간의 만남’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앞줄 왼쪽 7번째)이 25일 오전 서울 롯데호텔에서 재외공관장들과 조찬을 겸한 간담회를 갖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중기부

현대차·기아, 中 최적화 전동화 모델 공개

베이징 모터쇼

아이오닉5N, EV5 롱레인지 등 선택

현대자동차와 기아가 세계 최대 규모의 중국 베이징 모터쇼에서 전동화 모델을 대거 공개하며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최근 부진한 중국 시장에서의 브랜드 경쟁력 강화와 판매량 회복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엿볼 수 있다.

현대차와 기아는 25일(현지시간) 중국 베이징에 위치한 중국국제전람센터 순의관에서 개막한 베이징 모터쇼에 참가해 아이오닉5N과 EV5 롱레인지 모델 등을 공개했다.

현대차는 1208㎡(약 365평), 기아는 1100㎡(약 333평) 면적의 전시 부스를 꾸렸다. 현대차는 고성능 브랜드 ‘N’의 중국 진출 1년을 맞이해, 아이오닉5N을 중국 시장에 공개했다. 또 신형 산타페와 투싼도 중국 시장에 첫 공개했다. 특히 중국 시장에 최초로 공개한 투싼은 큰 차체를 선호하는 중국 현지 취향에 맞춰, 전장(차 길이)을 기존보다 30mm 늘렸다. 현대차는 디 올 뉴 산타페, 더 뉴 투싼과 함께 지난해 6월 출시한 중국 현지 전략 콤팩트 SUV ‘무과사’에 이르는 라인업을 통해 현지 소비자들의 다변화된 수요를 충족시킨다는 계획이다.

오익균 현대차 중국사업담당 부사장은 “남양연구소, 중국 기술연구소, 상하이 디지털선행연구소가 협업해 중국 맞춤형 전기차를 개발하고 있다”면서 “2027년까지 전용 전기차 모델 라

인업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해당 전기차는 중국 CATL의 배터리를 장착할 예정이다. 베이징현대차는 이날 CATL과 관련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기아는 중국 자동차 시장에서 가격 경쟁이 거세지고 있다고 판단, 인도 전략 차종인 쏘넷을 중국에 투입했다. 이번 베이징 모터쇼에서 소형 스포츠유틸리티차(SUV) 쏘넷이 중국에서 첫 공개됐다. 기아는 또 중국에서 생산되는 전기차 EV5를 전시한다. EV5는 E-V6와 EV9에 이은 기아의 세 번째 전용 전기차로 E-GMP를 적용한다. 내연기관 부스에서는 중국 판매 전략 모델로 새롭게 선보이는 쏘넷 차량 외에도 ▲스포티지 ▲셀토스 ▲삼풍성 개선모델 ▲카니발 등의 차량을 전시한다.

/양성운 기자



(위) 더 뉴 투싼(현지명: 전신(全新) 투성 L). (아래) EV5.

KCC “‘디지털 컬러 플랫폼’ 이용해 보세요”

빅데이터 기반 디지털 솔루션 개발

KCC가 고객의 업무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빅데이터 기반의 디지털 솔루션을 개발해 제공함으로써 고객사와 지속 발전 가능한 협업 관계를 구축하고 있다.

KCC는 자체 개발한 ‘디지털 컬러 플랫폼’을 고객사와 컬러강관 구매 업체가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했다고 25일 밝혔다.

디지털 컬러 플랫폼이란 KCC로부터 페인트를 구매 후 금속 강관에 코팅해 판매하는 고객사가 자신들이 매입한 페인트와 페인트를 활용해 생산한

컬러강관의 색상·제품·생산이력·재고 정보를 언제 어디서든 웹·모바일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발한 토털솔루션 프로그램이다.

KCC는 제품을 납품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객사가 자사의 제품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고객사 니즈를 반영해 이번 디지털 컬러 플랫폼을 구축했다. 색상 데이터 약 5만개와 고객사 제품 데이터 약 1만 8000개를 모두 데이터화 했으며, 여기에 AI를 접목해 검색만으로 색상, 생산이력, 재고현황 등을 모두 파악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김승호 기자 bada@

공공기관 안전관리 1등급 '0곳'... 에너지공단 등 4곳은 '미흡'

기재부, 공공기관 안전관리 등급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28곳 '양호' 평가대상 90곳 중 58곳은 '보통'

새만금공사와 한국에너지공단 등 4곳이 '공공기관 안전관리'에서 4등급(미흡) 평가를 받았다. 또 국립공원공단·한국환경공단 등 3등급(보통)에 그친 공공기관 수가 평가대상 90곳의 64%인 58곳에 달했다. 1등급(우수)를 받은 곳은 단 한 곳도 없었다.

기획재정부는 25일 김윤상 기재부 제2차관이 주재하는 제4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3년도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심사결과'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제는 건설현장, 작업장, 시설물 및 연구시설의 등 위험한 작업 환경을 가진 공공기관의 안전 수준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제도이다. 평가등급은 1등급(우수), 2등급(양호), 3등급(보통), 4등급(미흡), 5등급(매우 미흡)으로 구분된다.

작년 기준 심사결과, 1등급(우수)은 없었고 2등급(양호)이 28곳이었다.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식품연구원,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등이다.

3등급(보통)을 받은 기관은 국립공원공단을 비롯해 국민연금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한국석유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등이다. 한국마사회와 한국전력공사, 한국어촌어항공단, 한국원



세종 어진동 정부청사 내 기재부. /메트로

자력환경공단, 한국환경공단, 한국한의학연구원 등도 3등급에 머물렀다.

이어 '미흡' 수준인 4등급은 한국에너지공단,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시청자미디어재단, 새만금개발공사 등 4개 기관이었다. 5등급(매우 미흡)은 1등급과 마찬가지로 없었다.

올해 심사결과에 따라 해당 공공기관은 개선 필요사항을 연말까지 이행해야 한다. 4, 5등급을 받은 기관은 안전 전문기관의 컨설팅을 받아야 한다. 또 경영진 및 안전부서 직원을 대상으로 관련 교육을 실시하는 등 안전능력 제고를 위한 조치들을 수행해야 한다.

2022년과 비교하면, 1등급(우수)는 전년에 이어 올해도 없었다. 보통 이상(2, 3등급) 기관은 3곳 늘었고, 미흡 이하(4, 5등급) 기관은 3곳 줄었다. 기재부는 공공기관의 안전관리 수준이 평균적으로 상향 안정화하는 흐름이라고 진단했다.

김 차관은 "올해로 4년째를 맞이하는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제도가 공공기관 경영진의 책임을 강화해 안전 문화 정착에 기여했다"고 말했다. 이어 "안전에 대한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협력업체를 포함한 기관 모든 구성원이 참여해야 한다"며 "스스로 위험요인을 발굴하고 해결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자율적 안전관리경영체계 확립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기재부가 이날 함께 의결한 2023년도 공공기관 통합공시 점검결과 및 후속조치'에서는 '기관주의' 조치를 받거나 '불성실공시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없었다. 이는 국내에 공공기관 통합공시 점검제도가 도입된 이래 처음이다.

총 311개 기관을 점검한 결과, 3년 연속(기타공공기관은 2년) 통합공시 위반 벌점을 부과받지 않은 '우수공시기관'에는 근로복지공단, LH, 중부발전, 한국부동산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17개가 포함됐다. 전년에 비해 5곳 증가했다.

특히 올해엔 공공기관 임원 국외출장내역이 신규 점검항목으로 포함됐으나, 통합공시 점검제도 도입 이후 최초로 기관주의 또는 불성실공시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없었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공시 미흡기관에 대한 맞춤형 교육 및 컨설팅, 우수공시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 정부·공공기관이 공시 정보의 품질 제고를 위해 함께 노력한 결과라고 밝혔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metroseoul.co.kr

'전국 자투리 농지' 공원 등으로 탈바꿈

농식품부, '농업진흥지역 정비 계획'

산업단지·도로·택지 등으로 개발된 뒤 남은 자투리 농지가 주민 문화복지 시설, 체육시설, 편의시설 등으로 활용된다. 이 같은 자투리 농지는 전국 2만 1000헥타르(ha)로 추산되는데, 이는 서울 강남구 면적(3950ha)의 5배가 넘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규모 농업진흥지역 정비 계획'을 발표했다. 농촌소멸위기 대응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각 지자체의 자투리 농지 활용을 장려한다는 방침이다.

농식품부 고위관계자는 "과소화 및 고령화 등으로 인한 농촌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우리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농지를 포함한 농촌이 가진 모든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구체화하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그간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보전하기 위해 우량농지를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해 왔다. 그러나

도로와 택지, 산단 등 개발 후 남은 자투리 농지(3ha 이하)는 집단화된 농지에 비해 영농 규모화, 기계화 제약 등으로 영농 효율성이 낮았다는 게 농식품부의 설명이다. 이에, 주민 문화복지시설, 체육시설, 편의시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비하기로 했다.

지자체가 오는 6월 말까지 자투리 농지 중 개발 계획을 수립한 지역의 농업진흥지역 해제 요청서를 제출하면, 농식품부는 자투리 농지 여부와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게 된다. 이후 10월 중으로 농업진흥지역 해제 여부를 지자체에 통보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이 26일 전북 진안 성수면을 찾아 현장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 지역은 지난 2016년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된 자투리 농지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및 군 자체사업과 연계해 계획적으로 개발됐다. 농식품부는 "현장에서 송 장관이 자투리 농지에 설치한 스포츠공원(체육시설), 세대공감 마당(공원), 작은목욕탕 등을 둘러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김연세 기자

"종이컵·물티슈 요청하면 드릴게요"

환경부, BBQ 등 16곳과 협약 "불필요한 일회용품 사용 감축"

푸라닭·김가네 등 프랜차이즈 16곳이 일회용품 사용 안 하는 음식점 만들기 등에 동참한다. 고객이 종이컵, 물티슈 등을 요구하지 않는 한 먼저 제공하지 않기로 했다.

환경부는 25일 16개 음식점 가맹점,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와 함께 '일회용품 없는 음식점 문화 조성'을 위한 자발적 협약을 서울 여의도 컨심턴호텔에서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들 16곳은 고돼지와 고반식당, 김가네, 본도시락, 마녀주방, 미태리, 수유리우동집, 순대실록, 오복오봉집 등이다. 또 자담

치킨, 지호한방삼계탕, 푸라닭, 핏제리아오, 한마음정육식당, 33떡볶이, BBQ 등이 합류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한화진 환경부 장관, 16개 음식점 가맹점 사업자대표 및 정현식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분리배출 및 재활용 활성화 등의 실천문화 확산을 약속했다. 협약 참여업체는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재활용 촉진, 홍보 등 실천 문화 확산에 동참하게 된다. 특히, 고객이 먼저 종이컵·물티슈 등 일회용품을 요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일회용품을 제공하지 않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세종=김연세 기자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서 '수산물'도 유통

농식품부, 41개 신규 개선과제 발표 숙성치즈 소분 판매 허용 등 규제완화

정부가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는 품목을 수산물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에서 청과류와 양곡류, 축산물 등만 거래가 가능했다. 또 동물병원 진료비 게시항목을 확대하고, 숙성치즈의 소분 판매를 허용하는 등 규제완화에 적극 나선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5일 송미령 장관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5차 농식품 규제혁신 전략회의'를 개최하고 신규 개선과제 41개를 확정·발표했다. 확정된 규제개선방안은 올해와 내년 초에 걸쳐 순차적 시행을 추진한다.

농식품부는 지난 2022년 농식품 규제혁신 전담팀(TF)을 발족한 이후, 85개의 규제혁신 과제를 선정해서 개선 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현장 의견수렴 등을 통해 새롭게 제안된 과제 중 중요도·과급효과가 크고 시급한 과제들을 선별했다고 밝혔다.

우선, 오는 6월 중 농산물 온라인 도매시장 거래 품목을 수산물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온라인 도매시장의 조기활성화, 유통비용절감, 여가 수취가격상승 등을 기대하고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농식품부

있다.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 판매자 가입요건의 일부도 완화한다. 판매자 가입요건 중 전년도 거래규모 실적 요건을 기존 50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내리는 조치다.

또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협업해, 즉석 판매 제조·가공업소 내에서 완전 포장(밀봉) 형태로만 공급할 수 있었던 치즈를 숙성치즈에 한해 소분판매를 허용한다. 이는 10월 시행 예정으로, 이를 통해 업체의 재포장 비용 발생을 줄이는 효과를 꾀한다. 동물병원 진료비 게시 항목의 경우, 기존 11종에서 20종으로 늘려(6월 시행 예정) 동물 진료비 투명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산업단지 내 투자유치 활성화를 도

모하기 위해 국가식품클러스터 글로벌 식품기업존 최소 분양면적(1만 평) 제한을 폐지한다. 농어촌 민박은 면적 규모기준 완화 및 석식 허용 등을 검토하여 새로운 농촌관광 수요에 대응하고, 숙박·안전 서비스 품질 향상 등 소비자 인식에 맞게 개선한다. 농식품 펀드 운용사의 대상 범위(현재 벤처투자회사, 신기술사업금융업자등)에 창업기획자가 포함될 수 있도록 한다. 다양한 민간 투자회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진입문턱을 낮추는 방안이다.

송 장관은 "시대에 뒤떨어지고 낡은 규제를 집중 발굴·개선하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젊고 유능한 인재가 많이 유입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농식품 산업이 미래성장산업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 반려동물사료(펫푸드) 표시 기준 정비 등 새로 도입되는 분야는 기준 및 요건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반려동물사료 제조업체가 국가식품클러스터 내에 입주해 연관 산업의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아울러, 농업회사법인이 스마트농업 기자재 생산·컨설팅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사업 범위를 확대하는 등 신산업 지원을 위한 제도 정비를 추진한다.

/세종=김연세 기자

올해 한국형 녹색채권 3.9조 규모 발행

신한은행 등 23개 민간·공기업 참여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25일 서울 용산문도리안호텔에서 '2024년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 지원사업'에 참여한 23개 기업과 '한국형 녹색채권 활성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에 참여한 23개 기업은 올해 말까지 3조9000억 원(이 중 정부예산 55억 원) 규모의 한국형 녹색채권을 발행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1차 공고에 따라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 지원사업에 참여한 23개 기업은 한화에어로

스페이스·신한은행 등 14개 민간기업을 비롯해 한국남동발전 등 9개 공기업이 포함됐다.

이날 협약식에 참여한 정부·기관·기업 등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의 적용 확대 및 한국형 녹색채권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발행 예정인 녹색채권 분야는 △무공해운송기반시설 구축 △재생에너지 발전 △이차전지소재 제조 △대기오염물질 저감장비설치 등이다.

/세종=김연세 기자

제9회
베지노믹스페어

vegan & **green**
Festa Festa

www.veganfesta.com

서울비건 &
그린페스타

IT'S A
GOOD
LIFE!

식품&음료 | 패션&뷰티 | 생활용품
푸드테크 | 대체 소재&친환경 기술

2024.5.31(금)~6.2(일)
SETEC 전관

주최 서울특별시  비건페스타



소주·맥주 등 주류 가격 '제멋대로' 포항·영덕 사업자 800만원 과징금

공정위, 포항주류도매업협의회 독점규제·공정거래 법률 위반 적발 18차례 걸쳐 53개 제품 가격 결정 과잉경쟁 자제... 사업활동 제한

주류도매업사업자 단체가 유통음식점에 납품하는 소주와 맥주 등 주류 도매가격을 제멋대로 결정하다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는다.

공정위는 25일 포항·영덕지역 소매점에 주류를 판매하는 도매사업자들로 구성된 포항주류도매업협의회(이하 협의회)에 대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8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포항시, 영덕군 지역 소매점에 유통음식점용 및 가정용 주류 제품을 판매하는 지역 소재 종합주류도매업 면허 소지 사업자들의 단체다. 협

의회 구성사업자들은 해당 지역 유통음식점 9915개소 중 약 60%에 해당하는 5942개소에 주류를 공급하고 있다. 공정위 조사 결과, 협의회는 2019년 3월 28일 ~ 2022년 9월 14일까지 18차례에 걸쳐 월례회의 또는 임시회의 등을 열고 경주법주, 금북주, 롯데칠성음료 등 7개 주류제조사의 53개 제품에 대한 가격을 결정한 후 이를 구성사업자들에게 공지했다.

이런 행위는 개별 구성사업자의 자율적인 주류 도매가격 결정에 사업자 단체가 부당하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사업자 간 가격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협의회는 또 지난 2019년 월례회의에서 구성사업자간 거래처 확보를 위한 과잉 경쟁을 자제하기 위해 구성사업자간 거래 중인 기존업소와 영업 활동이 가능한 신규업소를 구분하는 기준을 정하고, 신규업소에 대해서만 영

업활동을 하도록 결정했다. 사업자단체가 거래처 확보를 위한 구성사업자들의 영업 활동을 자율적 판단에 맡기지 않고 부당하게 간섭해 구성사업자들의 사업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한 것이다.

공정위는 협의회의 이같은 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고, 가격결정행위 및 구성사업자 사업활동 제한행위에 대해 행위중지명령, 내부규정 과기명령, 향후 금지명령을 내렸다. 아울러 구성사업자들에게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통지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주류시장에서 사업자단체가 구성사업자의 주류 도매가격 결정 및 영업 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를 적발·제재함으로써 서민들이 즐겨 찾는 맥주, 소주, 막걸리 등에 대한 가격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왼쪽부터)김명주 경남도 경제부지사, 이광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항공사업부장, 배규호 디엔솔루션즈 수석부사장, 김성구 한화정밀기계 창원사업장장, 장금용 창원특례시 제1부시장이 투자협약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창원시

창원국가산단 내 3개社, 2708억 투자협약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 대규모 투자

창원특례시는 25일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창원국가산업단지 내 항공방산·정밀기계 선도기업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화정밀기계, 디엔솔루션즈와 총 2708억원 규모의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창원국가산업단지 지정50주년기념 행사와 연계해 진행된 이번 협약식에는 장금용 창원시 제1부시장을 비롯해 김명주 경남도 경제부지사,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이광민 항공사업부장, 한화정밀기계 김성구 창원사업장장, 디엔솔루션즈 배규호 수석부사장이 참석해, 창원국가산단 및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한 긴밀한 협력에 합의했다.

디엔솔루션즈는 연 9% 이상의 성장세가 예상되는 하이엔드 기종 생산 기반 마련을 위해 1130억원을 투자해, 현 사업장 내 공장 증설 및 초정밀 5축 가공기 등 전용 시설을 구축하고 143명을 신규 고용할 계획이다. 이번 투자는 자동차, 항공, IT 등 고부가산업의 제조 기반 강화 및 고가 수입 장비의 국산화

를 통해 국내 산업의 제조 경쟁력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한국형 차세대전투기 'KF-21' 엔진 국산화에 따른 중장기 생산능력 확보와 첨단 항공기 엔진 개발 기반 마련을 위해 2025년까지 591억원을 투자해 현 사업장 내 생산시설을 증설하고 30명을 신규 고용할 계획이다.

한화정밀기계는 SMT 생산능력 향상과 반도체공정 장비 신사업 진출 등 반도체 사업을 지속 확대해 나가기 위해 2025년까지 987억원을 투자해 현 사업장 부지 및 공장을 매입하고 제조동을 증설한다.

장금용 제1부시장은 "창원국가산업단지의 과거 50년을 돌아보고 미래 50년을 준비하고 있는 의미있는 시기에 창원국가산단의 선도기업인 3개사가 대규모 투자를 결정한 것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이번 투자로 기업과 창원국가산업단지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기업 투자에 대한 행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창원(경남)=손병호 기자 metrobusan5@

중기부, 경북에 대경권 엔젤투자허브 구축

(대구·경북 지역)

충청, 호남, 동남 이어 4번째 선정 지자체 추진 의지 등서 좋은 평가 오는 6월까지 설치 후 운영 본격화

중소벤처기업부가 비수도권 엔젤투자 활성화를 위해 대구·경북 지역(대경권) 엔젤투자허브를 경북에 구축한다.

25일 중기부에 따르면 지역 엔젤투자허브는 민간과 공공이 가진 인프라와 역량 등을 활용해 엔젤투자의 수도권 편중을 완화하고, 지역 단위 초기투자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2021년부터 지

방 광역권에 설치, 운영하고 있다.

2021년에 충청권(대전·세종·충남·충북)과 호남권(광주·전남·전북·제주)을 시작으로 2023년에는 동남권(부산·울산·경남)에 구축했다. 이번이 네 번째로 대경권(대구·경북) 엔젤투자허브가 최종 선정됐다.

경북은 이번 평가에서 지자체의 추진 의지, 창업투자 활성화 추진현황 및 실현가능성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중기부는 오는 6월까지 경북 경산시에 위치한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 경산

지점(영남대학교)에 대경권 엔젤투자허브를 설치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중소벤처기업부 이지호 투자관리감독과장은 "경북에 조성될 대경권 지역 엔젤투자허브는 잠재적 투자자 발굴 및 스타트업과 투자자간 네트워크 구축, 초기 창업기업 투자분위기 확산 등 지역 엔젤투자의 중심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자체와 함께 지역의 엔젤투자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승호 기자 bada@

광주시, 업무자동화로 디지털 행정 혁신 가속

특근매식비 자동 산출 안내 등에 도입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업무자동화시스템(RPA)을 다양한 행정업무에 도입, 디지털 행정 혁신을 가속화하고 있다.

광주시가 올해 처음으로 추진한 업무처리자동화는 ▲특근매식비 자동 산출 안내 ▲교육훈련 실적등록 자동화 ▲상시학습 이수실적 안내 등 3건이다.

'교육훈련 실적등록 자동화'는 광주시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자동화 과제이다. 그동안 교육에 참여한 직원이 교육 이수 실적을 직접 등록했지만 이제는 업무자동화시스템(RPA)으로 처리토록 해 개별 등록에 따른 번거로움을 해소했다.

'특근매식비 자동 산출 안내'는 매월 부서마다 30분 이상 할애하던 특근매식비 금액 계산을 자동화해 업무시간 절감과 함께 수기 계산에 따른 실수를 차단했다.

'상시학습 이수실적 안내'는 1년에



광주시는 업무자동화시스템(RPA)을 다양한 행정업무에 도입, 디지털 행정 혁신을 가속화하고 있다. /광주광역시

2차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일괄 통지하던 상시학습 실적을 자동화를 통해 상시학습 미충족자를 대상으로 개별 통보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개별 통지에 따른 불필요한 개인정보 유출을 차단했다.

광주시는 업무자동화시스템(RPA)을 통해 수작업에 따른 실수를 막고, 24시간 중단 없는 업무처리로 연간 약 3000시간 이상 업무처리시간을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광주시는 자동화 도입 효과를 분석

해 자동화 전환을 확대할 계획이다. 인공지능(AI)과 데이터를 적극 활용한 행정업무 재설계로 자동화 처리율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특히 신규 자동화 과제 발굴을 위해 전 부서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자동화 적용사례를 분석한다. 다른 기관에서 안정적으로 운영돼 도입 효과가 증명된 업무 등을 중심으로 자동화 전환을 확대할 예정이다.

광주시는 절감된 시간만큼 부가가치가 높은 핵심 업무와 시민을 위한 정책 개발에 집중,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배일련 기획조정실장은 "급변하는 디지털 전환시대, 행정에도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며 "디지털 기반의 업무처리로,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고 시민 중심의 행정을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는 공무원들의 정책연구모임인 '알파공'(RPA를 연구하는 공무원)을 운영하고 있다.

/광주=양수명 기자 ysn6313@

서울동행버스, 판교·의정부 등 4개 노선 신설

수도권 주민 이동 편의성 개선

서울시는 수도권 주민의 이동 편의를 개선하기 위해 '서울동행버스'의 노선을 확대한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동행버스 노선은 기존 6개에서 판교, 고양 화정, 의정부 고산, 의정부 가능 등 4개를 신설해 총 10개가 된다.

서울07번(성남시)은 아침 7시부터 오전 7시45분까지 총 4회 운행한다. 해당 노선을 오가는 버스는 양재역에서 출발해 성남시 판교 제2테크노밸리에 도착한다.

서울08번(고양시)은 아침 7시~7시

30분 사이에 3회 운행한다. 운행 경로는 고양시 화정역부터 DMC역까지이다.

서울09번(의정부시)은 새벽 6시30분부터 오전 7시15분까지 총 4회 운행한다. 의정부시 고산지구에서 출발해 노원역까지 간다.

서울10번(의정부시)은 아침 6시30분~7시15분 사이에 4회 운행한다. 운행 경로는 의정부시 기능동부터 도봉산역 광역환승센터까지이다.

시는 신규 노선 추가로 판교 제2테크노밸리, 고양 화정역, 의정부 고산지구와 가능동 인근 지역에서 서울로의 접근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

/김현정 기자 hjk1@

대학노조 "글로벌대학, 구조조정 부추겨"

재정 확대됐지만 소수 대학에 집중 이주호 부총리·교육부 장관 사퇴 촉구

전국대학노동조합(대학노조)이 교육부가 추진하는 글로벌대학 사업이 오히려 지역 대학 구조조정을 부추킨다고 비판하며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사퇴를 촉구했다.

대학노조는 25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등교육재정은 양적으로 확대됐지만 소수 대학에 집중되는 글로벌대학 등의 방식

으로는 당연한 대학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몇 년간 이어져 온 입학생 감소와 이에 따른 대학 운영의 위기는 대학을 넘어 지역소멸의 위기로 치닫는 상황"이라며 "대학의 생태와 고등교육 비전을 고려치 않고 경제적인 논리로 규제개혁·구조개선을 지속해서 추진한다면 대한민국 고등교육의 미래는 더 어두워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이주호 장관이 즉각 사퇴할 것을 촉구했다. /이현진 기자 lhj@tm

아워홈, 경영권 분쟁 ‘떡구름’... 노조 “구지은 체제 유지해야”

〈아워홈 부회장〉

지난해 최대실적... 성장세 찬물 구지은, 사내이사 선임안 부결 구본성, 임시주주총회 소집 청구

지난해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하며 성장세를 달리고 있는 아워홈이 내일의 경영 다름으로 좌초 위기에 처했다.

25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아워홈 창업자 고(故) 구자학 회장의 장남 구본성 전 부회장과 장녀 구미현 씨가 연대해 현재 아워홈을 이끌고 있는 막내 구지은 부회장을 이사회에서 밀어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워홈 노동조합은 구 부회장을 지지하는 입장을 밝혀 이목이 집중된다.

지난 17일 서울 강서구 마곡지구 본사에서 열린 아워홈 주주총회에서는 구지은 부회장과 차녀 구명진 씨를 포함해 10여 명의 사내이사 선임안이 부결됐다. 구본성 전 부회장과 구미현 씨 측이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아워홈 마곡 사옥

/아워홈

구지은 부회장은 오는 6월 사내이사 임기가 만료된다.

이날 사내이사에는 구미현 씨와 그의 남편인 이영렬 전 한양대 의대 교수가 올랐다. 구미현 씨가 제안했고, 표결에 따라 통과됐다.

상법은 자본금 10억원 이상의 회사의 경우 사내이사 세 명을 두도록하고 있다. 따라서 구 부회장이 임기를 마치기 전인 6월 전에 임시주주총회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구본성 전 아워홈 부회

장은 25일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청구했다. 구 전 부회장이 청구한 임시주주총회 안건에는 지난 주총에서 선임이 불발된 구본성 전 부회장의 장남 구재모 씨와 전 중국남경법인장 황광일 씨의 사내이사선임의건, 기타비상무이사로 구본성 본인 선임의 건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워홈 노조는 구 부회장을 지지하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노총 전국식품산업노동조합연맹 아워홈 노조는 최근 성명을 통해 구본성 전 부회장과 구미현 씨를 규탄하며 구지은 부회장 경영 체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조는 “경영에 무지한 구미현, 이영렬 부부는 이사직 수용을 즉시 철회해야 한다”며 “아워홈의 주인은 노동자들이다. 대주주들의 경영권 싸움으로 아워홈 직원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오너들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사내이사로 선임된 구미현 씨 부부는 기업 경영 경험이 전무하다. 구미현 씨는 전업주부로 그동안 아워홈 경영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바가 없는 데다 그의 남편인 이영렬 전 한양대의 대 교수도 마찬가지다.

노조는 “구본성 전 부회장은 200억원이라는 터무니없는 배당을 요구했으며, 자식을 사내이사로 선임하려고 시도했다”며 “또한 형사 재판 중인 본인의 혐의에 대한 감사를 진행했다는 이유로 감사 자격을 운운하며 재선임을 반대하고 보수 지급도 막아 아워홈의 감사 업무를 방해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한편, 아워홈은 구지은 부회장 경영 체제 하에 지난해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역대 최대 수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매출(연결기준)은 전년 대비 약 8% 늘어난 1조9835억원이며, 영업이익은 943억원을 기록, 전년 대비 무려 76% 가량 큰 폭으로 상승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에스티팜, ‘K-올리고’ 글로벌 영향력 키운다

제론 등 고객사 신약 도전 줄이어 내년 하반기 ‘제2 올리고동’ 가동

전 세계 무대에서 ‘K-올리고’를 알리고 있는 에스티팜이 글로벌 영향력 확대에 본격 나선다.

25일 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올리고핵산 원료를 위탁개발생산(CDMO) 하는 에스티팜이 급변하는 국내외 바이오 산업 환경에서 치료제 트렌드를 주도하고 있다.

올리고핵산은 리보핵산(RNA) 치료제 핵심 원료다. RNA 치료제는 유전 정보를 전달하는 RNA를 활용한 약물이다. 질병을 일으키는 유전자에 특이적으로 결합해 특정 단백질 생산을 조절하는 새로운 기전을 갖췄다.

에스티팜은 질병을 일으키는 유전자를 알아내면 치료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RNA 치료제가 신약으로 연구개발되고 있다고 설명한다.



에스티팜 반월캠퍼스 전경

/에스티팜

에스티팜의 고객사 중 하나인 미국 바이오 기업 제론의 경우, 골수형성 이상증후군(MDS) 치료제 ‘이메텔스타트’에 대해 미국 식품의약국(FDA) 자문위원회로부터 허가권고 의견을 받았다. 최종 허가 여부는 오는 6월 경 이뤄질 전망이다.

‘이메텔스타트’가 미국 FDA로부터 신약으로 허가를 받게 되면 상업화 물량 생산이 진행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에스티팜은 일찍이 ‘이메텔스타트’ 개발 초기 단계부터 함께 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미국 제약사 아이오니스의 ‘도니달로센’, ‘올레자르센’ 등도 약물 승인을 노리고 있어 에스티팜의 영향력이 커질 것으로 풀이된다. ‘도니달로센’과 ‘올레자르센’ 모두 올리고핵산을 원료로 하는 치료제다.

RNA치료제 시장 확대에 따라 에스티팜은 제2 올리고동 건설을 통해 생산 능력에서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에스티팜은 지난 2023년 하반기 제2 올리고동 착공을 시작해 오는 2025년 하반기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제2 올리고동이 완공되면 에스티팜의 올리고 생산능력은 연간 14mol(최대 7t)까지 늘어나게 된다. 이는 현재 생산능력인 6.4mol 대비 두 배 이상에 해당하는 규모로, 에스티팜은 생산능력 세계 1위 기업으로 도약할 전망이다.

/이청하 기자 mlee236@

제일약품, ‘자큐보정’ 국산 신약 등극

〈위산분비 억제제〉

제일약품 자회사 온코닉 자체 개발 효능·안정성 입증... 연내 출시 목표

‘국산 37호’ 신약이 나왔다. 이와 함께 국내외 의약품 시장에서 국산 칼륨 경쟁적 위산분비 억제제(P-CAB) 3종사의 선전이 기대되는 상황이다.

제일약품은 지난 24일 신약개발 자회사 온코닉테라퓨틱스가 자체 개발한 위식도 역류질환 치료 신약 ‘자큐보정(성분명: 자스타프라잔)’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최종 품목허가를 승인받았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승인으로 ‘자큐보정’은 국산 ‘신약 37호’에 이름을 올렸다. 국산 신약의 등장은 지난 2022년 11월 허가받은 대응제약의 당뇨병 신약 ‘엔블로정’ 이후 약 1년 반 만이다.

‘자큐보정’은 칼륨 경쟁적 위산분비 억제제(P-CAB) 계열 치료제다. 자큐보가 세 번째 국산 P-CAB 제제 자리를 차지하게 된 것이다. 같은 계열 약물로 HK이노엔의 ‘케이캡’, 대응제약의 ‘팩수클루’ 등이 각각 2019년, 2022년 출시됐다.

위식도 역류질환 치료에서 P-CAB 약물은 양성자 펌프에 결합해 칼륨 이온의 유입을 막는 방식으로 위산 분비를 억제한다. 반면, 기존 양성자 펌프 저해제(PPI) 약물은 위산 자극에 의해 활성화된 양성자 펌프에만 비가역적으로 결합한다.

이에 대해 온코닉테라퓨틱스는 P-CAB 약물은 위산에 의한 활성화 과정이 필요 없는 것이 특징이라고 설명한다. P-CAB 약물은 식사 여부와 관계없이 복용 가능하고 약효가 빠르다. 또 위 내 산성 환경에서 안정성이 높아 위 속에 오래 머물기 때문에 약효가 오래 지속된다.

‘자큐보정’은 급여 등재를 거쳐 연내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국내 영업, 판매, 유통 등은 관계사인 제일약품이 맡는다. 아울러 온코닉테라퓨틱스는 추가 적응증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도 진행 중이다. 지난 2023년 중국 제약기업 리브존파마슈티컬그룹과 자큐보정 개발 및 상업화에 대해 1억2750만 달러(약 1600억원) 규모의 기술수출 계약을 체결했다.

/이청하 기자

옛것·새것 어우러진 감성 주점... ‘아침산 저녁바다’ 입소문

수제튀김 등 50여개 요리 각광 프레스원 통해 식자재 확보

한식 주점 ‘아침산 저녁바다’가 뉴트로 감성을 자극하는 인테리어와 메뉴로 MZ세대 맛집으로 입소문을 타고 있다.

2018년 용인에서 처음 문을 연 ‘아침산 저녁바다’는 옛것과 새것이 함께 머무는 공간이라는 콘셉트 아래 한식 기반의 메뉴 구성과 빈티지한 인테리어 소품 등으로 ‘요즘 한식 주점’의 맛과 공간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 ‘아침산 저녁바다’는 5개의 직영 매장을 운영하면서 쌓은 노하우를 바탕으로 지난 2021년 가맹사업을 시작한 이후 빠르게 성장해 현재 전국 매장 20여 곳을 운영 중이다.



아침산 저녁바다 매장 전경

/CJ프레시웨이

‘아침산 저녁바다’의 가장 큰 경쟁력은 정성을 담아 손수 만드는 50여 가지의 요리다. 전, 튀김, 볶음, 탕, 마른안주 등 식사부터 안주류까지 다양한 요리를 선보이며 고객 선택의 폭을 넓혔다. 특히 수제 고추튀김, 골뱅이 낚지 무침 수육, 바다 흥어 삼합 등 신선한 식

재료를 사용한 메뉴들이 인기가 높다.

식자재는 CJ프레시웨이의 외식 식자재 유통 전문 자회사인 ‘프레스원’으로부터 공급받고 있다. ‘프레스원’은 PB 포함해 상품 약 3만여 종을 보유하고 있으며, 전국 콜드체인 물류 시스템으로 안전하고 신선한 식자재 배송을 책임진다.

옛 정서를 물씬 느낄 수 있는 인테리어 도넛길을 끈다. 과거 포장마차를 새롭게 재해석한 공간은 기성세대에게는 향수를 되찾아주고, MZ세대에게는 색다른 흥미를 선사한다.

/신원선 기자



유튜브(메트로신문) 동영상 제공



CJ제일제당, ‘동치미물냉면’ 전면 리뉴얼

동치미 함량 높이고 레몬즙 더해

CJ제일제당이 본격적인 여름에 앞서 ‘동치미물냉면(사진)’의 맛과 패키지를 전면적으로 리뉴얼했다고 25일 밝혔다. ‘동치미물냉면’은 평안도식 정통 레시피로 간편식 냉면 시장에서 19년간 꾸준한 인기를 얻고 있는 스테디셀러다.

‘동치미물냉면’은 제주산 겨울무로 담긴 동치미 육수와 쫄깃한 면발이 특징이다. 이번 리뉴얼을 통해 육수에 동치미 함량을 높이고 레몬즙을 더해 깔끔하면서도 깊은 맛을 구현했다. 또한



최고 수준의 면 제조노하우를 바탕으로 고온에 볶은 메밀을 활용해 더 쫄깃한 식감과 구수한 메밀향을 살렸다.

제품포장디자인도 바꿨다. 냉면이 떠오르는 시원한 푸른색을 바탕으로 제품명과 이미지 크기를 키워 ‘깊고 시원한 육수’라는 특징점을 한눈에 볼 수 있게 했다.

/신원선 기자

루마니아 대통령, 두산에너지빌리티 SMR 제작 역량 확인

(소형모듈원전)

루마니아, 첫 SMR 발전소 건설 추진
경남 창원 본사 방문해 생산시설 시찰
핵심 기기 원자로 모듈 제작·공급 예정

루마니아의 첫 소형모듈원전(SMR) 발전소 건설을 추진하는 클라우스 요하니스 대통령이 두산에너지빌리티의 SMR 제작 역량을 직접 확인했다.

두산에너지빌리티는 클라우스 요하니스 루마니아 대통령이 지난 24일 경남 창원 본사를 방문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방문은 루마니아가 건설 추진하는 SMR 사업을 위한 생산시설을 시찰하기 위해 마련됐다.

루마니아 원자력공사등이 지분투자해 설립한 회사 '루마니아 로파워'는 도이세슈티 지역에 위치한 폐쇄된 석탄화력발전소 부지에 총 462MW 규모의 SMR 발전소를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 뉴스케일파워의 77MW급 SMR 6기가 사용된다. 두산에너지빌리티는 핵심



루마니아 클라우스 요하니스 대통령(오른쪽)이 24일 두산에너지빌리티 경남 창원 본사를 방문해 두산에너지빌리티 박지원 회장과 면담을 하고 있다.

주기기인 원자로 모듈을 제작·공급할 예정이다.

창원 본사에 도착한 방문단 일행은 단조 공장, 원자력 공장을 찾아 뉴스케일파워 SMR 단조소재, SMR 제작 전용 설비 등을 살펴보고 향후 프로젝트 일정을 점검했다.

요하니스 대통령은 "루마니아는 청

정에너지 산업계에서 공급망을 구축해 지역내 탈탄소화를 이끌고자 한다"며 "세계적인 선진 기업과 협력하고 파트너가 되는 것은 미래 에너지와 경제를 굳건히 하는데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지원 두산에너지빌리티 회장은 "뉴스케일파워와의 견고한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두산에너지빌리티는 혁신 기술

개발 등 SMR 제작 역량을 꾸준히 고도화하고 있다"며 "루마니아 첫 SMR 제작을 위한 준비도 면밀히 진행해 안정적인 청정에너지 공급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두산에너지빌리티는 국내 투자사들과 함께 뉴스케일파워에 지분투자를 하며 핵심 기자재 공급권을 확보한 바 있다. 2019년 뉴스케일파워 원자로 모듈에 대한 제작성 검토에 착수하고 2021년 완료하며 현재 모든 기자재 제작 준비를 마친 상태다. 뉴스케일파워 SMR은 지난 2020년 SMR 모델 중 최초로 미국 원자력 규제 위원회(NRC)의 설계인증을 받았다.

루마니아 SMR 사업은 현재 부지 정비 작업 중이다. 미국 정부는 지난 달 수출입은행과 국제개발금융공사를 통해 40억 달러(약 5조 4000억 원)의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고 밝혔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교원그룹, 아이들 지구 배려 습관 키운다

교원그룹이 아이들이 지구환경을 배려하는 생활습관을 키울 수 있도록 '웰스 아이클린 캠페인'을 펼쳤다. 25일 교원그룹에 따르면 올해로 4번째를 맞는 '웰스 아이클린 캠페인'은 연극, 율동 등을 활용해 환경 보호의 중요성을 알리고 일상생활에서 환경보호를 실천할 수 있도록 돕는 사회공헌 활동이다. /교원그룹



한일시멘트, 임직원 안전의식 제고

한일시멘트가 임직원 안전 의식 제고를 위해 서울 서초동 본사에서 최고안전경영자(CSO) 안전 포럼을 개최했다. 25일 한일시멘트에 따르면 이번 포럼에선 오해근 CSO, 한일시멘트 및 한일현대시멘트 주요 생산공장 공장장 등 16명이 참석했다. /한일시멘트

LG U+, 시각장애인에 ICT 교육 지원

(정보통신기술)

사용환경 개선 기부금 5000만원 전달
한시련, ICT 교육용 지도서 제작
전국 220여곳서 교육 진행 예정

LG유플러스가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한시련)와 함께 시각장애인을 위한 스마트폰 사용법 등 정보통신기술(ICT) 교육을 시작한다고 25일 밝혔다.

LG유플러스는 지난해 시각장애인의 스마트기기 사용환경 개선을 위한 5000만원의 기부금을 전달했다. 한시련은 이 기부금으로 260쪽 분량의 ICT 교육용 지도서를 제작했으며, 시각장애인 전문가가 제작에 참여했다. 지도서는 저시력 시각장애인 강사를 위해 큰 글자와 그림을 삽입했고, 중증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와 데이지(DAISY) 파일로도 제작됐다.

특히 이 ICT 교육용 지도서에서는 시각장애인들이 스마트폰을 사용하기 위해 필수적인 '톡백(안드로이드OS)', '보이스오버(iOS)' 등 화면해설 기능 사용법을 자세히 소개한다. 이 밖에도 ▲제스처 ▲독서 ▲연락처 ▲SNS ▲스마트 스위치 ▲이동·보행 등 서비스별 이용 방법을 초급에서 고급 영역으로 나눠 소개하고 있다.

한시련은 이달부터 전국지부와 북



지난 24일 오후 경기도 부천시 해밀도서관에서 시각장애인이 스마트폰 사용 교육을 받고 있는 모습. /LGU+

지관 등 220여곳에서 시각장애인 대상 스마트기기 활용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영일 한시련 회장은 "디지털 기술이 시각장애인에게 일상의 편의는 물론 사회 진출 확대를 가져올 것으로 확신한다"며, "본 지도서가 시각장애인의 디지털 문해력 향상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홍렬 LG유플러스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추진실장은 "나눔봉사 정신을 통해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소외계층의 든든한 이웃이 되도록 다양한 활동을 기획하겠다"고 말했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롯데웰푸드, 4개국서 치아관리 습관 알려

'스마트 해빗 캠페인' 시작
韓·日 등서 글로벌 스쿨 진행

롯데웰푸드는 자일리톨을 활용한 핀란드식 건강한 치아 관리 습관을 알리기 위해 한국, 일본, 베트남, 핀란드 4개국에서 '스마트 해빗(Smart Habit) 캠페인'을 시작한다고 25일 밝혔다. 해당 캠페인은 치아 건강 선진국인 핀란드의 사례를 바탕으로 자일리톨 섭취를 생활화하는 습관을 전 세계로 공유하는 프로그램이다.

이에 롯데웰푸드는 24일 핀란드의 초등학교생들이 한국, 일본, 베트남의 초등학교생들에게 자일리톨을 활용한 치아 관리 습관을 공유하는 온라인 수업 '글

로벌 스쿨'을 진행했다. 4개국을 동시에 연결해 온라인으로 진행된 이번 프로젝트에서는 핀란드 초등학교생들이 선생 역할 맡아 식후, 취침 전 등 생활 속에서 직접 실천하고 있는 자일리톨 활용법을 각국 아동들에게 소개했다. 또, 자일리톨에 관한 치아 관리 습관에 대한 퀴즈를 진행해 흥미를 더했다. 충치예방연구회에서는 치아건강에 대한 교육시간을 진행하기도 했다.

글로벌 스쿨에는 한국의 인천 확산 초등학교, 일본의 시나가와 쇼우에이 초등학교, 베트남의 총짜 초등학교, 핀란드의 쿠오사리 초등학교에서 각각 20명 내외의 학생들이 참여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한솔제지, '패키징 대전'서 수상

한솔제지의 친환경 프리미엄 팬시지 '인스퍼 시그니처 에코 100'이 제 18회 대한민국 패키징 대전 코리아스타상 기업부문에서 '한국패키징단체총연합회장상'을 수상했다. 이번 패키징 대전에서 수상한 '인스퍼 시그니처 에코 100'은 100% 재생펄프만을 원료로 만든 친환경 프리미엄 팬시지다. /한솔제지



인하대, 우즈벡 장관에 명예박사 수여

인하대학교(총장 조명우)는 최근 셰르조드 셰르마트프(Sherzod Shermatov) 우즈베키스탄 디지털기술부 장관에게 명예 행정학 박사 수여했다고 25일 밝혔다. 셰르마트프 장관은 올해로 개교 10주년을 맞이한 타슈켄트 인하대학교(Inha University in Tashkent·IUT)의 안정적인 정착과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인하대학교

중앙대, HMM과 AI영상분석솔루션 공급

글로벌에이아이와 '딥아이즈' 개발

중앙대학교(총장 박상규)는 교수 창업기업인 글로벌에이아이가 국내 최대 해운기업 HMM과 선박 안전 모니터링 인공지능(AI) 영상분석솔루션 '딥아이즈(Deep Eyes)'를 공급하기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글로벌에이아이는 임창원 중앙대 응용통계학과 교수가 창업한 기업으로 물류 산업에 필요한 AI 솔루션을 맞춤형으로 개발·공급하는 전문 AI 업체다. 선박 안전 솔루션에 더해 컨테이너

손상 탐지 솔루션 등을 개발해 해운 물류 기업들에 공급하고 있다.

글로벌에이아이와 HMM이 협력해 개발한 '딥아이즈'는 영상 AI 기술을 활용해 선박 내 이상 상황을 탐지하는 기술이다. CCTV 영상을 통해 화재나 연기와 같은 이상 상황을 탐지하고, 현장 관리자에게 알람이나 경고방송을 통해 즉시 전달한다.

실시간으로 현장을 모니터링해 각종 선박 내 안전사고를 신속히 대처하는 것은 물론 인명피해 예방에도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이현진 기자 lhj@

인사

◆산업통상자원부 ◇부이사관 승진상에너지정책과장 이경수 △자원안보정책과장 김재은 △자유무역협정협상총괄과장 박근오 ◇과장급 전보△기계로봇항공과장 신용민 △배터리전기전자과장 박재정 △무역진흥과장 정승혜 △전력계통혁신과장 최성준 △기술안보과장 손용하 △재생에너지정책과장 남명우

부고

▲남경희씨 별세, 정상진(충북경찰청장)씨 빙모상 = 25일 낮 12시, 대구 모례아장례식장 101호실, 발인 27일. 053-801-9999
▲선귀남씨 별세, 박현준(울산매일 양산본부장)씨 장모상 = 25일, 광주 금호장례식장 401호실, 발인 27일 오전 10시 062-227-4000

오늘의 날씨

해돋이 / 05:43 | 해질 / 19:18

4월 26일 (금)
음력 : 3월 18일

수도권 날씨
13 ~ 26°C

운동 지수: [Progress bar]
빨래 지수: [Progress bar]
세차 지수: [Progress bar]
외출 지수: [Progress bar]

지역별 날씨: 연천 9/27, 동두천 10/27, 백령도 10/17, 파주 9/25, 가평 9/28, 서울 13/26, 양평 10/27, 인천 12/22, 수원 13/25, 용인 13/25, 평택 10/26

·자료제공 :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김용석 세종대 화학과 교수 국가발전 이바지 공로 인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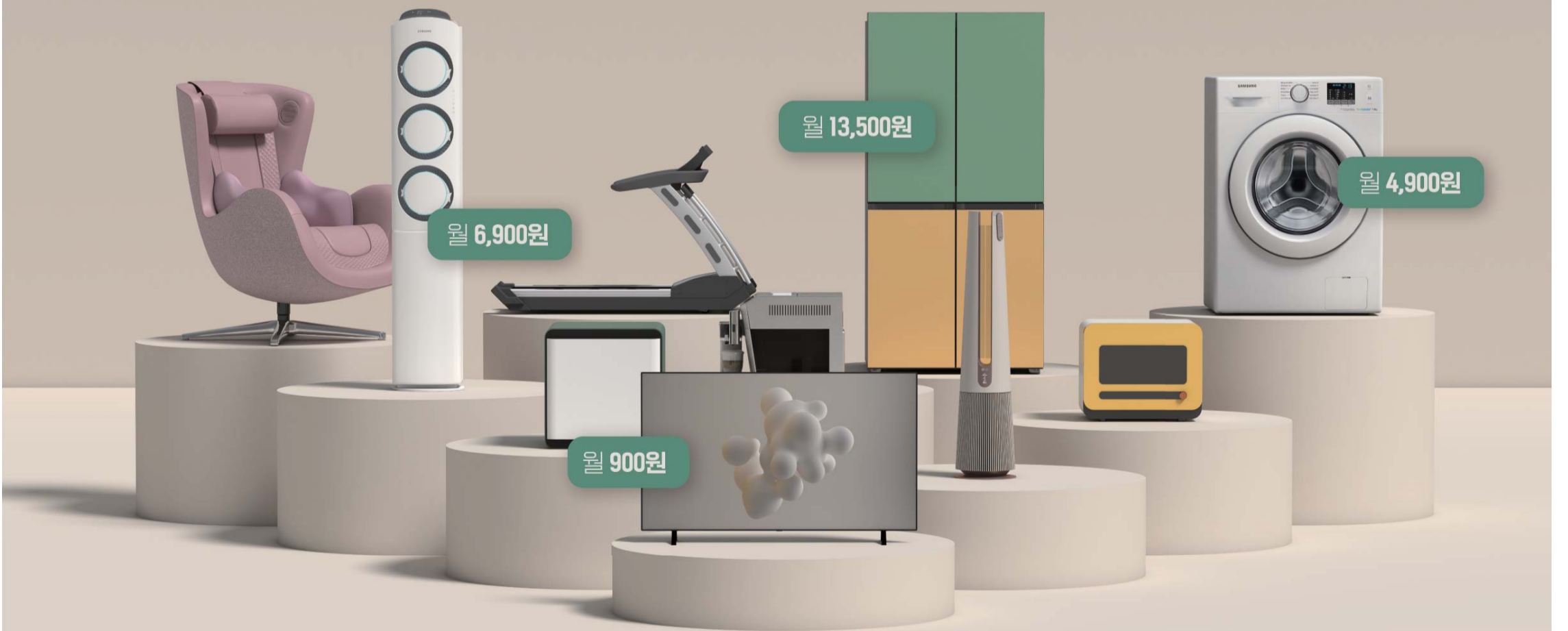
세종대학교(총장 배덕호)는 김용석 화학과 교수(사진)가 지난 22일 국립과천과학관 중앙홀에서 열린 '2024 과학·정보통신의 날' 기념식에서 과학기술진흥을 통해 국가발전이 이바지한 공로로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고 25일 밝혔다. /이현진 기자

LG HelloVision

Hello rental

지금 사고 나눠내자!

온라인 최저가보다
최대 **72%** 저렴하게!



새로운 가전 구매 트렌드

LG헬로비전 헬로렌탈 🔍

상담문의 1855 - 1082

※ 최저가 비교기준 : 22년 3월 N사 쇼핑 기준, 삼성TV(KU50UA7050FXKR), KB제휴카드 전월 30만원 사용에 따른 할인 적용 시 ※ 월 렌탈료는 품목 및 할부 기간에 따라 상의



이복현 금감원장이 지금 해야 할 일



이복현
西村브리핑

건설 경기가 올 들어서도 계속 나빠지면서 경기 회복의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어렵게 워크아웃 결정이 난 태영건설 파동 이후에도 계속되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부실이다 쌓이는 미분양, 기증되는 금리 부담의 3중고로 건설업계 위기감이 크다. 개발·시행 사업은 중단되다시피 했고, 지방은 상황이 훨씬 나쁘다. “언제 망해도 이상하지 않다”는 절규까지 들린다.

건설업계의 어려움은 지난해부터 계속 불거졌다. 약 2만 개인 종합건설사 중 2347곳이 지난해 문을 닫았다. 2021년과 2022년에도 각각 1736곳, 1901곳이 폐업했을 정도로 건설업계 개별회사의 부침은 늘 있었지만 지난해 이후 눈에 띄게 나빠진 것이다.

그런데, 왜 건설사들만 부도가 날까? 건설사들과 함께 PF 사업에 뛰어들어 금융회사 중에 부도난 곳이 하나라도 있을까? 없다. 신용경색에 몰린 곳이 있을까? 없다. 왜 그럴까?

대한건설협회와 건설연이 국내 중소 건설사(시공능력평가액 40~600위)의 '부동

산 신탁사 참여 PF 사업장 현황 분석'을 보면 금융회사나 기금으로 구성된 신탁사가 참여한 총 70개 사업장 가운데 62곳이 채무 인수 약정을 체결했다. 정해진 기간 내에 책임 준공을 하지 못하면 중소기업회 사에게 대주단의 채권을 인수하라는 계약이다. 이런 불공정한 계약이 있을까?

책임 준공을 못하는 사유가 시공사만의 책임일까? 시행사나 대주단이 공사 대금을 제때 주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각종 민원으로 공사가 지연될 수도 있고, 땅속에 어마 어마한 암반이 있을 수도 있다. 간자재 가격과 인건비가 올라 주어진 건축비로 도저히 완공을 못하는 경우도 많다. 건설사가 통제하지 못하는 요소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이걸 모두 건설사 책임으로 돌린다.

혹시 하자라도 발생한다면 건설사에게 일방적인 책임을 강요한다. 불공정계약이 남발하고 있다. 이런 뉘플 짓을 리스크 관리란 명목으로 금융회사들이 앞장서 하고 있다. 불공정계약에 따른 구조적 리스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니 채무인수 리스크에 쓰러진 건설사가 속출한다. 울 들어서 시공능력평가 순위 100위권 중견건설사들이 줄줄이 무너지고 있다. 당장 올해 만기가 돌아오는 책임준공관리형(책준형) 사업장도 전국에 100곳이 넘는다고 한다. 그러

니 PF 위기론이 가라앉지 않는다.

금융회사는 수백 개다. 정부로부터 인허가 특혜를 받은 소수의 회사만이 제한된 경쟁을 하며 산업의 동맥 역할을 하도록 되어 있다. 건설사는 각종 협회에 등록된 회사만 수만 곳이다. 완전경쟁시장이다. 관련 종사자는 무려 수백만명이다. 경제에서 차지하는 건설의 기여와 역할을 굳이 설명할 필요가 있을까?

‘비가 올 때 우산을 뺀지 않는 것’이 금융사들의 도덕적 가치인데도 불구하고 금융사들은 왜 이런 암체 짓을 할까? 인센티브에 눈이 멀었기 때문이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이성을 추구하기 보다는 이익을 따른다. 누가 인센티브를 받아갔을까? 경영자인가 실무자인가? 인센티브를 보면 이번 사태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분명해진다. 돈을 많이 벌 어 금융업이 건설해지는 것이 이사회가 요구하는 금융의 역할이 아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금융만 봐서는 안 된다. 금융이 산업을 활성화시키는 지, 좀 먹고 있지는 않은 지 살펴야 한다. 경제가 원활히 돌아가도록 금융이 올바른 역할을 하는 지 감독하고 질서를 바로 잡아야 한다. 전후방 효과가 특별히 큰 건설산업 특성상 건설 생태계가 다 무너지지 않도록 선량한 금융감독 정책이 필요한 때다. /ljh@metroseoul.co.kr

실손보험과 도덕적해이



김주형
(금융부)

스포츠를 좋아하는 이들에게 병원 방문은 연례 행사다. 특히 축구를 좋아한다면 발목, 무릎 등 관절과 인대가 남아나질 않을 테다.

최근 발목 인대가 파열돼 정형외과를 찾은 적이 있다. 의사는 부상 부위를 살펴 보더니 우선 실손의료보험 가입 여부를 물었다. 실손보험 가입 여부에 따라 진료와 처방이 달라지는 것이다.

실손보험에 가입했다고 답하자 한달 동안 매주 초음파와 주사치료를 처방했다. 치료 끝자락에는 체외충격파까지 권했다. 의사는 “실손이 있으니 원한다면 치료를 다 받게 해주겠다”고 말했다. 실손보험을

둘러싼 의사와 환자간의 ‘도덕적 해이’가 이렇게 발생한다.

보험의 꽃인 실손보험은 가입자가 4000만명에 달해 ‘제2의 국민건강보험’으로 불리지만 보험업계의 최대 골칫거리로 전락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실손보험의 손해율은 113% 수준이다. 이제는 손해율이 100%를 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시 여겨질 정도다. 백내장 다초점렌즈, 도수치료, 미용 시술 등은 실손보험금 누수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돼 왔다. 신의료기술로 인정된 주사치료 등도 새로운 실손보험 누수 요인으로 떠오르고 있다.

2013년 17조7129억원이었던 비급여 본인 부담액은 2022년 32조 3213억원까지 증가했다. 실손보험 덕에 안과·정형외과·피부과 등에서 고가의 경증 치료를 통해 손쉽게 돈을 벌 수 있는 구조가 확립됐다. 실제 일부 의사는 실손보험금을 최대

한 받아내기 위해 비급여 항목 가격을 높게 책정하면서 수입을 늘려왔다. 환자들은 저렴한 비용으로 입맛에 맞게 의료요품을 즐길 수 있다.

도덕적해이(도덕해저드)는 17세기 보험사에서 처음 유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당시 보험에 가입한 뒤 조심성이 줄어드는 경향이 나타나면서 도덕적해이라는 말이 생겼다고 한다.

보험은 설계부터 도덕적해이를 방지할 장치가 있어야 한다. 국가 차원에서 의료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나라들은 도덕적해이를 막기 위한 장치들을 갖추고 있다.

무상의료를 시행하는 영국과 캐나다 등은 진료전달체계를 갖추고 있는데 이는 가입자인 국민의 도덕적해이를 막기 위한 장치다. 보험은 필연적으로 도덕적해이가 따르고 이를 막을 장치를 내부에 장착해야 완전한 보험이 될 수 있다. /gh471@

오늘의 운세 4월 26일 (음 3월 18일) http://www.saju4000.com

- 36년생** 서두르지 말고 급할수록 한발 물러서서, **48년생** 신용이란 진리이다. **60년생** 공부에 투자는 소홀히 넘길 문제가 아니다. **72년생** 다툼이 생길 수 있으나 도와주는 이가 옆에 있다. **84년생** 작은 부자는 부지런함에서 말미암는다.
- 37년생** 성공에는 품위가 있고 예의가 있다. **49년생** 새로 시작한 일이 기대 이상이다. **61년생** 어린이는 어머니를 모방하며 스승으로 인생을 배운다. **73년생** 소개로 인해 사랑의 감정이 싹튼다. **85년생** 운이라는 것도 자신이 만드는 것이다.
- 38년생** 아둔한 나를 탓하고 상대방을 배려하자. **50년생** 신념이 있다면 두려움도 없다. **62년생** 물이 너무 맑으면 고기가 없는 법이니 야망을 베풀자. **74년생** 상하 협력하는 것을 배우도록. **86년생** 혼자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다.
- 39년생** 마른 눈에 물이 밀려 들어온다. **51년생** 밤을 이겨내는 자만이 밝은 새벽을 볼 수 있다. **63년생** 믿음을 갖고 기다리면 실망하지 않는다. **75년생** 우물거에서 송송 찾지 말고 일은 순서대로. **87년생** 남보다 절약이나 하나의 습관이다.
- 40년생** 태양이 떠 있는 한 꿈을 버리지 마라. **52년생** 자식 자랑을 입이 아프게 할 수 있는 날. **64년생** 재산이 없어질까 두려움과 우울함이 있다. **76년생** 일하는 사람만이 휴식의 맛을 안다. **88년생** 원만한 대인관계에서 발전되어 왔다.
- 41년생** 고목에 꽃이 피었으니 희망이 보인다. **53년생** 능력 이상의 일을 무난히 처리할 수 있다. **65년생** 종일 계획대로 이루어진다. **77년생** 운이 상승하는 날이니 용기를 내어 일하자. **89년생** 무슨 일이나 지나치면 걱정거리가 생긴다.
- 42년생** 구슬수를 조심하고 가족과의 대화도 조심. **54년생** 마음이 화창하니 복이 절로 굴러 들어오는 날. **66년생** 기다리면 문서도 잘 살펴야 한다. **78년생** 가까운 친구가 나를 모함하니 인간관계를 잘 맺자. **90년생** 걱정 없는 한가한 하루.
- 43년생** 상대의 작은 실수는 덮어주는 것이. **55년생** 아랫사람의 의견이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 **67년생** 물건은 새것이 좋고 사람은 옛사람이 좋다. **79년생** 어항 속의 물고기처럼 변화가 없는 하루이다. **91년생** 천지와 자연은 다 감응이 있다.
- 44년생**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 **56년생** 생각하면 인생은 늘 드라마라 할 수. **68년생** 강을 건넌어도 배는 잘 간직해야 한다. **80년생** 좋은 약이 많아요 마음의 병약은 없는 듯하다. **92년생** 신세 졌던 사람에게 빚을 갚아야 하는 날이다.
- 45년생** 계몽은 누구든 자신에게 불성실한 것. **57년생** 산에 오르는 데는 추락의 위험도 있다. **69년생** 미웠던 일에 정성과 열의를 다시 갖자. **81년생** 뿔성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다르다. **93년생** 모래 위에 쌓은 성은 바람 불면 날아가 버린다.
- 46년생** 하루가 즐거우나 손재수도 있을 것. **58년생** 곱질을 까지 않고 밥을 먹을 수는 없다. **70년생**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면 밥도 먹지마라. **82년생** 모르는 분야라면 불평하지 말고 배우면서 해나가야. **94년생** 처음부터 과정이 있어야 결과가 있다.
- 47년생** 오후 즐거운 일이 생긴다. **59년생** 자제력과 헌신이 따르면 결과는 얻는다. **71년생** 직장에서 기회가 주어진다. **83년생** 주식투자는 낯장 광고보다는 긍정적인 뉴스를 접하며 투자해야. **95년생** 재물운인 의식주 걱정이 없어서 보람을 느낀다.

김상회의四季

색다른 재테크



재테크라면 대표적으로 부동산 주식 예금을 떠올린다. 더 범위를 넓히면 채권이나 어음 등도 들 수 있다. 요즘 색다른 재테크가 있는데 전통적인 방식과 다른 재테크로 특히 투자금이 적은 MZ세대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 그중 하나는 리셀테크로 어떤 물건을 정가나 싼 가격에 구매한 뒤에 웃돈을 얹어서 다시 되파는 걸 말한다. 특징은 짧은 기간에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것이다. 리셀테크가 가능한 건 명품이나 희소 가치가 있고 사람들이 많이 찾는 물건만 가능하다. 인기를 끄는 건 투자방법이 간단하고 적은 돈으로도 수익률을 올릴 수 있기 때문이다.

뉴스를 보면 백화점 명품관에서 오픈런을 해도 손에 넣기 힘든 품목들이 있고 이런 품목은 시간이 지나면 가격이 더 오른다고 한다. 스포츠 스타들과 협업으로 만들어 판매하는 신발들은 대표적인 리셀테크 품목이다. 리셀 판매가격이 몇 배로 뛰기도 한다. 한우 투자도 색다른 재테크로 꼽을 수 있다. 한우 송아지의 소유권을 여럿이 나눠서 구매하는 재테크다.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여러 사람이 함께 투자하고 송아지가 자라서 팔리면 그때 수익을 나눠 갖는 독특한 방식이다.

송아지가 어떻게 자라는지 판매할 때 문제가 될 만한 질병은 없는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조각 투자인데 투자하려는 자산의 지분을 여러 사람이 쪼개서 투자하는 방식이다. 무모한 발상이라 아니 든 사회가 다양화하고 기술이 발달하면서 투자는 금액의 문제가 아니라 의지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여하튼 곱은 돈이라고 하지 않던가. 명리학에서 재생살財生煞이라 하여 돈이 모이는 곳에는 살기운이 함께 작용하니 머리만 잘 돌리지 말고 살煞, 피를 보지 않도록 분수를 알고 행동하시길.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회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새벽특집

스도쿠365

3X3 �도쿠 X는 가로세로 3X3박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회색 9곳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크로스의 열과열을 즐기세요
http://www.argo9.com

할인도서

빨간펜

Ai CANDO

1:1 초밀착 관리로 공부 빈틈없는

우리 아이 완전 학습

빨간펜 아이캔두

학교 맞춤
진도식 커리큘럼



1~6학년
전과목 교과연계



무료체험하고 선물 받기

전문 선생님의 1:1 화상티칭 관리로 공부 지구력 UP! 서술형 자신감까지!



매주 1:1 화상티칭
업계유일 1:1 초밀착 관리로
학습 집중도 향상!



서술형 티칭 커리큘럼
서술형 문항 티칭으로
서술형 평가까지 완벽 대비!



학습자 감성 케어
담임 선생님의 칭찬과 격려로
학습 동기 부여!

지구를 지키는 와인습관



안상미 기자의
Why, wine

‘지구의 날’ 주간이니 고민해본다. 와인 소비자 한 명, 한 명의 행동이 환경에 의미있는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까. 답은 ‘예스(Yes)’다.

와인을 마시는 사람들이 변하면 와인을 만드는 사람들이 바뀔 수밖에 없다. 특히 와인도 포도재배부터 양조, 맛까지 기후 변화에 따른 위협을 받고 있다. 거대담론이 피부에 와닿지 않는다면 내가 좋아하는 와인을 지키기 위해 바뀌어야 한다고 마음먹으면 된다.

먼저 와인을 고를 때다.

친환경 마크를 찾아라. 미국 와인이라면 CCOF, EU는 녹색 별을 옆 모양으로 만든 로고, 프랑스라면 AB 또는 ‘Ecocert’, 이탈리아는 ‘Ecogruppo’ 등이다. 합성 살충제나 비료를 사용하지 않



영국의 슈퍼마켓 알디(Aldi)는 자체 종이병 와인을 출시하기도 했다. /Frugalpac

고 유기농으로 재배한 포도로만 만들었다는 의미다. 여기에 승인된 재료만 사용하고, 아황산염을 첨가하지 않았다면 ‘유기농(Organic) 와인’이라고 표기할 수 있다.

‘바이오다이نام릭 와인’이라고 써있다면 유기농

농법은 물론 자생적인 생태계로 조성된 포도밭에서 자란 포도를 사용했고, 설탕이나 산 등을 첨가하지 않고 자연 효모 등으로 와인을 양조했다는 의미다.

친환경 인증이 아예 일반화된 지역의 와인을 고르는 것도 방법이다.

뉴질랜드의 경우 포도밭의 96%가 지속가능성 인증을 받았고, 와인의 90% 이상이 친환경 인증을 받은 와인너리에서 만들어진다.

미국에서는 소노마 카운티가 샤르도네와 까베르네, 소비뇽 블랑, 피노 누아, 시라 등을 키우는 포도밭의 약 99%가 지속가능성 인증을 받았다. 소노마 카운티 지속가능성 로고가 붙어있다면 사용한 포도 가운데 최소한 85%는 인증받은 포도를 썼다는 얘기다.

가능하다면 더 가벼운 병을 골라 잡자.

와인 한 병의 일반적인 용량은 750ml다. 더 가벼워지려면 와인병의 무게가 덜 나가야 한다.

우리는 와인을 장기적으로 보관하고 숙성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소재였지만 와인 온실가스 배출량의 절반 가량을 차지하는 주범이었다. 와인 소

비자들이 목격한 와인을 더 좋은 와인이라고 생각한다는 조사결과도 있었지만 그런 고정관념은 버릴 때다. 지속가능한 와인 라운드테이블(SWR)은 와인병의 경량화를 위해 2026년 말까지 병의 평균 무게를 25% 줄이도록 하는 협정을 발표하기도 했다.

아예 유리병을 포기할 수 있다면 더 좋다. 캔와인이나 백인박스(BIB) 포장 와인 말이다. 국내에서도 3리터나 5리터 등 대용량으로 나온 BIB 와인을 구할 수 있다.

대체 소재에 대한 수요가 늘면서 페트병이나 알루미늄, 심지어 종이로 만든 병에 와인을 넣는 와인너리들도 생기고 있다. 유리병과 비교하면 80%나 무게가 덜 나간다.

와인 쇼핑을 가면서는 전용백을 미리 준비하자. 쇼핑백 하나 줄이자고 하는게 아니다. 깨질세라 와인병을 싸고 또 싸는 에어캡 사용도 줄일 수 있다.

와인애호가라면 이제 와인 한 잔도 지구에 최대한 친절한 방식으로 마셔보길다.

/smahn1@metroseoul.co.kr

주말은 책과 함께

당신의 일상은 어떤가요

새벽에 자주 깨는 이유를 찾아봤다. 불안해서란다. 무엇 때문에 불안한 것인가. ‘사생활의 천재들’이란 책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었다. 저자는 ‘어디에도 기록될 것 같지 않은 역사 바깥의 시간을 시시하고 진부하게 살지 않으려 애쓰는 이’를 일컬어 ‘사생활의 천재’라고 부른다. ‘사생활의 천재들’은 매일 반복되는 시간, 자신의 기억에서도 결국은 흐릿해질 시간을 살아내느라 뜨거운 열정을 퍼붓는 사람들을 인터뷰해 엮은 책이다.

불안을 다른 내용이 책에서 가장 인상 깊었다. 저자가 만난 사생활의 천재 중 한 명인 흥기빈 글로벌 정치경제연구소장은 불안이 무엇인지, 우리가 왜 불안에 떠는지 알려준다. 불안과 공포의 차이는 대상의 존재 유무다. 공포는 대상이 있고, 불안은 없다. 불안에 시달리는 사람은 자신이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모르고 뭐가 다가올지 알 수 없어 불행하다.

불안하면 대책을 세울 수 없게 되고, 영혼은 무기력과 무감각에 잠식된다. 흥 소장은 “통장에 4만원이 있으면 아무것도 못 한다. 멍하게 무슨 일이 일어날 때까지 속수무책으로 기다리는 것밖에 할 일이 없다”며 “손발이 묶인 채 괴물이 다가오는 것을 보는 것과 같다. 가난이 아니라 무기력이 사람을 무능력하게 한다”고 밝힌다.

흔히들 자유를 잃으면 안정되고, 안정성을 포기하면 자유를 얻는다고 생각하지만 이는 잘못된 고정관념이다. 그는 “오늘날의 불안은 자유와 세트가 아니라 지루함과 세트다”며 “돈 없는 이에게 자유란 끔찍한 것이다. 프리랜서도 마찬가지다. 겉보기엔 자유롭지만, 돈이 없다면 그 자유는 끔찍한 것이다”고 이야기



사생활의 천재들
정혜윤 지음/봄아필

한다.

신자유주의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불안함과 지루함을 불러오는 결과를 피하기 위해 먹이사슬 위에 올라가려고 기를 쓴다. 그들은 미래를 위해 현재를 포기한다. 그는 “현재는 미래가 있기에 존재한다. 둘 사이가 동떨어져 있지 않다”며 “사람들은 불안 때문에 미래를 생각하지 못한다. 그러면 산 자도 죽은 자도 아닌 상태가 돼버린다”고 지적한다.

뇌리에 박힌 노래 가사 ‘내가 제일 잘 나가’, 서점가에 부는 ‘자기계발서 열풍’, MZ세대 사이에서 유행인 ‘갓생(모범적이고 부지런한 삶) 살기’는 모두 불안의 산물이다. 저자는 “한 아프리카 부족에 전해 내려오는 속담에 따르면 사람을 정말로 가난하게 만드는 건 외로움이다”며 “정말로 가난한 자는 입을 옷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곁에 아무도 없는 이다. 친구를 언제든지 경쟁자로 여길 수 있는 세상에서 우리는 뺏속 깊이 추운 가난뱅이들이다”고 말한다.

340쪽. 1만6000원. /김현정 기자 hik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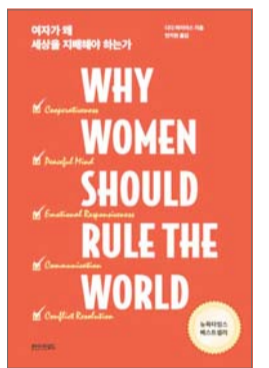
여자가 왜 세상을 지배해야 하는가

디디 마이어스 지음/민지현 옮김/페이퍼로드

미국 최초의 여성 백악관 대변인 디디 마이어스는 1992년 대통령 선거에서 빌 클린턴을 당선시킨 주역 중 한 사람이었다. 대선 승리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31세라는 젊은 나이에 백악관에 입성한 저자는 상상보다 훨씬 더 투명하고 견고한 유리천장을 마주하게 된다. 백악관의 여성 보좌진들에게는 직무에 걸맞은 권한이 주어지지 않았다. 디디 마이어스의 직책과 업무는 남성 전임자들

과 달랐다. 그녀는 자신보다 직급이 낮은 다른 부서의 남직원보다 연봉이 적었을 뿐만 아니라 여자라는 이유로 중요한 정보를 공유받지 못해 곤혹스러운 일을 빈번하게 겪었다. 저자는 여성이 남성의 의례를 체득해야만 사회에서 인정받지만, 실제로 남자처럼 행동하거나 그들보다 뛰어나면 비난받게 되는 이중 구속의 문제를 지적한다.

396쪽. 1만9800원.



걱정 중독

롤란드 파울센 지음/배명자 옮김/북복서가

현대인들은 과거 그 어느 때보다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안전한 세상에서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걱정과 불안에 시달린다. 쏟아지는 정보와 무수한 선택지 앞에서 인간은 자유로워하는 대신 부담감에 짓눌려 숨 막혀 한다. 한 번의 선택으로 승자와 패자가 나뉘고, 한 차례의 실수도 허용되지 않을 것 같다는 공포심이 내면에 내재돼 있어서다. 책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옳은 선택을 내려 반드시 행

복한 결과를 맞이해야 한다는 강박적의 무감이 박혀 있다고 지적한다. 삶은 수많은 우연과 불확실성으로 점철돼 있고, 부단히 애를 써도 모든 조건과 상황을 통제하는 건 불가능하다. 저자는 “삶과 세상은 단순한 방정식에 따라 굴러가지 않고 언제나 불투명한 미래를 전제한다는 것을 인정할 때, 우리는 자신과 세계에 대해 한 뼘 더 깊은 이해에 도달할 수 있다”고 이야기한다.

452쪽. 1만95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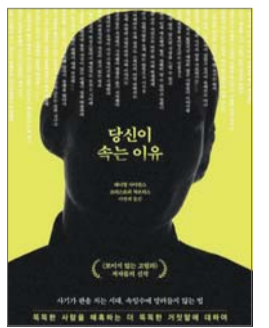
당신이 속는 이유

대니얼 사이먼스, 크리스토퍼 차브리스 지음/이영래 옮김/김영사

기막힌 속임수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사람의 마음이 움직이는 방식을 활용한다는 것이다. 책은 일의 생산성을 높이는데 도움을 주지만, 때때로 그럴싸한 거짓말에 넘어가게 만드는 인간의 4가지 인지 습관(집중·예측·전념·효율)과 사기꾼들이 거짓을 진실로 둔갑할 때 사용하는 4가지 후크(일관

성·친숙함·정밀성·효능)에 주목한다. 가짜 뉴스에서부터 이메일 피싱 사기, 월스트리트의 폰지 사기까지. 다양한 속임수 사례를 통해 인간의 인지적 약점과 매력적으로 보이는 정보의 특성을 분석해 우리가 당했거나 당할지도 모를 속임수를 알아차리고 대비하게 해주는 책.

472쪽. 2만4000원.



바스타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두 살 손녀 태운 차 ‘공포의 질주’... 또 급발진?
▲ ‘증원 반대’ 의대생 1만3000명 집단 소송 집행정지 모두 각하 /사진 뉴시스

▲ 국민 99% “공무원에게 위법행위 한 민원인, 법적대응 필요”
▲ ‘결혼할 여친 191회 찢러 잔혹살해’ 20대, 징역 23년 확정



▲ “엄마 성 따를래요” 성인이 낸 성·본 변경 청구 법원서 허가
▲ 의개특위 “‘의대 정원’ 논의 안 해... 2025학년도 조속히 확정돼야” /사진 뉴시스

금융권 문화 뚫은 '비주류'... 장기 전략으로 '주류 금융' 이끈다

CEO 리서치 **빈대인** BNK금융지주 회장

지난해 5월 BNK금융지주 회장으로 취임한 빈대인 회장(64)은 인내심을 갖고 미래에 투자하는 인물로 꼽힌다. 비주류에서 주류로 올라선 입지전적 인물이다. 조용하지만 자신의 능력을 입증하며 BNK금융 회장 자리에 오른 만큼 빈 회장은 단기 성과에 매달리지 않는다. 그 대신 그룹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중장기 목표를 제시하고 차분하게 금융그룹을 이끌고 있다.

◆ 빈대인 회장이 걸어온 길

1960년생인 빈대인 회장의 고향은 경남 남해다. 어린 시절 가족과 함께 부산으로 거점을 옮긴 그는 1979년 부산 원예고등학교를 졸업했다. 집안이 넉넉치 않았다. 장학금을 받기 위해 경성대 법학과에 들어갔다. 88년 졸업 이후 1992년에는 경성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과 석사과정을 마쳤다.

빈 회장은 본래 고시를 준비했지만, 적성에 맞지 않아 포기하고 1988년 2월 졸업과 함께 부산은행에 입행했다. 이후 2008년 경영혁신부 부장을 거쳐, 인사 부 부장을 거쳐 2012년에는 부산은행 사상공단 지점장을 지냈다.

이후 능력을 인정받아 2013년에는 북부영업본부장, 2014년에는 경남지역본부 부행장보를 지냈고, 2015년에는 신금융사업본부에서 부행장까지 올랐다. 부산은행 내부에서 비주류에 속하는 경성대 출신으로는 이례적이었다.

그런 그에게 기회가 찾아왔다. 2017년 당시 부산은행장을 겸임하던 성세환 전 BNK금융 회장이 물러나고 김지완 회장이

경성대 법대 졸업 후 부산은행 입행 영업본부장, 은행장 거쳐 회장까지 비주류 출신에도 이례적 승진기도 내부 파벌, 관치 논란서 자유로워

이 취임하면서 은행장 대행으로 부산은행을 이끌었다. 소방수로 등장한 그는 능력을 인정받아 부산은행장 자리까지 올랐다.

이후 3년의 행장 임기를 마치고 퇴장했다. 하지만 그에게 다시 기회가 주어졌다. 연임에 성공한 김지완 회장이 임기를 앞두고 용퇴를 선언했기 때문이다. 빈 회장은 비주류 출신으로 내부 파벌 문제에서 자유로웠다. 또 부산은행 출신으로 관치 논란에서도 벗어나 있었다. 빈대인 전 은행장은 곧장 다그흐스로 부상했다. 가장 유력한 차기 회장으로 꼽혔던 안감찬 당시 부산은행장을 누르고 회장으로 등극했다.

◆ 챗GPT에게 물어보니

빈대인 회장의 경영철학을 챗GPT에게 물어봤다.

챗GPT는 빈 회장의 경영철학이 지역 사회와의 동반 성장, ESG에 기반한 경영을 중점으로 하는 지속 가능한 성장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의 관심사에 대해 지배구조 강화, 동반권 전체를 아우르는 지역 상생금융, 금융산업에 맞춘 기후 변화 대응 전략 등을 언급했다.

다음은 챗 GPT의 응답이다.

빈대인 BNK금융그룹 회장의 경영철학은 주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중심으로 한 지속 가능한 금융 실현, 탄소 배출 저감 및 기후 변화 대응, 포용 금융을 통한 지역 동반 성장 및 지역 경제 활성화, 그리고 지배구조 강화를 통한 투명한 경영 실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빈 회장은 ESG 경영을 통해 동반권 지역에서 지속 가능한 금융을 실현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이를 위해 저탄소 사회로의 전환, 기업 내부 및 자산 포트폴리오의 탄소 배출량 저감, ESG 위원회 구축을 통한 체계적인 지배 구조 및 금융산업의 특성에 맞는 기후 전략 수립에 중점을 두고 있다.

빈 회장은 포용금융을 통해 금융 취약 계층 지원 및 지역 경제와의 동반 성장을 모색한다. 이를 위해 다양한 금융 지원 활동과 지역 기업과의 상생 및 지역 경제



빈대인 BNK금융지주 회장.

/BNK금융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그의 경영철학은 BNK금융그룹이 지역사회와의 상생, 환경 보호 및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방식으로 실현되고 있다. 이는 그룹이 장기적인 성장을 도모하며, 지역 경제 발전과 사회적 가치 창출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빈 회장의 깊은 의지를 반영하고 있다.

중장기적 성과 위한 내실다지기 집중 ESG경영... 지속가능한 금융 실현 계열사 7곳 중 5곳 세대교체 나서 손해보험회사 인수 방안 검토도

◆ 빈 회장은 어떤 사람

그는 치밀하고 꼼꼼하다. 정직하고 합리적이다. 그를 요약하는 단어는 '조용한 모범생'이다. 선후배들의 평가는 '조용히 제 할 일에 열중하는 정직한 사람'이다. 그래서일까. 일부에선 카리스마 부족과 우유부단을 단점으로 꼽는다.

빈 회장이 부산은행에서 빠른 진급을 거듭할 수 있었던 배경은 치밀하고 꼼꼼한 성격 때문이란 평가다. 실수가 없고, 적을 만들지 않는 그의 원만한 성격이 그가 회장자리까지 오른 배경이다.

또한 빈 회장은 젊은 직원들 사이에서 '특별한 사람'으로도 평가받는다. 뒷배경이 없는 비주류 출신으로 엘리트의식이 강하고, 보수적인 금융권 문화를 이겨내고 금융지주 회장까지 오른 입지전적 인물이기 때문이다.

지금은 다소 열여섯이지만 BNK금융은 부산상고 출신과 동아대 출신, 부산대 출신이 주도권을 두고 경쟁하며 성장을 이끌었다. 지주사 회장과 은행장도 서로 번갈아 배출했다. 그러나 빈 회장

은 원예고를 나와 경성대를 졸업해 어느 파벌에도 속하지 않는다.

빈 회장은 지난해 취임사에서 "평범한 행원으로 시작한 제가 누구든지 최선을 다하면 BNK의 리더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임직원 여러분에게 보여주었다는 점에 대해서 자긍심도 가져보게 된다"며 "진심이 통하는 곳, 공정한 기회가 열려있는 BNK에서 여러분들의 큰 꿈을 마음껏 펼쳐 보기 바란다"고 밝힌 바 있다.

◆ 그의 성과와 목표

빈 회장은 지난해 3월 취임 직후 인사에서 9명의 지주 임원 중 8명을 교체했고, 7곳의 계열사 중 5곳의 계열사 대표를 새 인물로 채우며 세대교체에 나섰다.

작년 말 인사에서도 JB금융 출신의 외부 인사를 그룹 CFO(최고재무책임자)로 영입하고, 주요 계열사 재무 부서를 CFO 산하로 재배치하며 지주의 장악력 강화에 나섰다. 또한 전체 계열사에 윤리경영부를 설치하는 등 금융사고 재발 방지에도 힘쓰는 모습이다.

빈 회장에게서는 '성과'에 급급한 금융지주 CEO 특유의 조급함을 찾아보기 어렵다. 빈 회장은 임기 초부터 단기간 성과를 위한 외형 성장보다는 장기 성과를 위한 내실 다지기에 집중하고 있다.

빈 회장의 목표는 BNK금융의 숙원인 '종합금융그룹' 달성이다.

빈 회장은 지난해 "종합금융그룹이 되려면 은행과 증권사, 보험사를 보유해야 한다"며 "보험이 빠진 BNK금융은 아직 미완성 상태라고 볼 수 있다"며 "인터넷 전문 손해보험회사나 해외 손해보험회사 인수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목표를 밝혔다.

/안승진 기자 asj1231@metroseoul.co.kr

빈대인 BNK금융지주회장 프로필

- 1960년 경남남해 출생
- 1979년 부산원예고등학교 졸업
- 1988년 경성대학교 법학과 졸업
- 1992년 경성대학교 대학원 법학 석사 학위 취득
- 1988년 부산은행 입행
- 2008년 부산은행 경영혁신부 부장
- 2009년 부산은행 인사부 부장
- 2012년 부산은행 사상공단지점 지점장
- 2013년 부산은행 북부영업본부 부장
- 2014년 부산은행 경남지역본부 부행장보
- 2015년 부산은행 신금융사업본부 부행장
- 2017년 부산은행 은행장
- 2023년 BNK금융지주회장 취임



▲美, 가자지구 암매장 시신 다수 발견에 "이스라엘은 설명해야"
▲엔화, 또 34년 만의 최저 '약세'...日 증시는 2%대 하락 /사진 뉴시스

▲"홍콩서 30일부터 비트코인·이더리움 현물 ETF 거래 개시"
▲한-호주 외교·국방+2 장관회의, 내달 1일 호주서 개최



▲동·서남아 기록적 폭염 '비상'...방글라·태국 등 인명피해 속출 /사진 뉴시스
▲프랑스 남부, 10대 폭력사건 기승에 청소년 심야통금령



하이닉스
1분기 깜짝실적
HBM 양산 속도
03



Life

빈대인 회장
장기전략으로
'주류금융' 선도
L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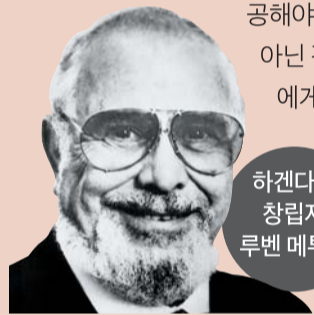


달콤한 한입의 행복 단순한 디저트 넘어 특별한 미식경험을

아이스크림이 인류에게 사랑받아 온 역사는 그리 짧지 않다. 아이스크림의 기원은 고대 페르시아에서 눈에 장미수를 섞어 과일을 얹어 먹었던 것에서 유래했다는 설도 있고, 알렉산더 대왕이 눈에 우유와 꿀을 섞어 먹은 것에서 유래했다는 이야기도 있다. 히포크라테스도 아이스크림을 '생명수'라고 부르며 극찬했다고 한다. 최근 아이스크림은 사계절 내내 즐길 수 있는 기호식품으로 자리잡았다. 보통 우울감을 극복해 행복한 감정으로 전환하기 위해, 혹은 행복감을 느끼기 위해 아이스크림을 구매한다.

이러한 아이스크림의 본질을 일찍이 파악한 사람이 있다. 프리미엄 아이스크림 브랜드 하겐다즈의 창립자 '루벤 메투스'다.

그는 아이스크림이란 단순히 차갑고 달콤한 디저트를 넘어 만족스러운 경험을 제공해야 하는 것이라며, 아이스크림을 단순히 디저트가 아닌 감정과 경험의 영역으로 확장시켰다. 물론 사람들에게 최고의 경험을 선사하려면 제품 자체, 즉 품질의 기반이 근본적으로 다져져야 하므로, 루벤은 세계 최고의 '프리미엄' 아이스크림을 만들겠다는 일념 하에 1961년 하겐다즈를 설립했다.



하겐다즈 창립자 루벤 메투스



하겐다즈 기본 플레이버

메가히트 브랜드 탄생스토리

하겐다즈

“하겐다즈를 경험하고 나면 다른 아이스크림은 먹을 수 없을 것이다”

창립자인 루벤 메투스의 원대한 포부로 시작된 하겐다즈는 순수한 기본 원재료만을 사용하여 제조한 기본 플레이버 바닐라, 초콜릿, 커피 아이스크림을 창립과 함께 처음으로 선보였다. 합성 색소나 합성 향료 없이, 높은 유지방 함량으로 존독한 식감과 재료 본연의 깊은 맛을 구현해낸 점이 특징이다.

이후 세계 각국에서 찾아낸 엄선된 원재료만으로 최고 품질의 아이스크림을 만드는 것은 현재까지도 하겐다즈의 일관된 비전이 되었으며, 그와 동시에 하겐다즈는 아이스크림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혁신적 제품을 함께 선보이며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글로벌 아이스크림 브랜드로 성장, 독보적인 왕좌의 자리를 지키고 있다.

1961년 하겐다즈 창립한 '루벤 메투스' 프리미엄 아이스크림 제조 포부 담아 순수한 원재료 사용해 본연의 맛 살려 극강의 부드러움·깊은 풍미로 입소문

◆'60년을 한결같이' 바닐라 아이스크림

하겐다즈의 No. 1 플레이버는 단연코 바닐라다. 하겐다즈의 바닐라 아이스크림에서는 그 어느 아이스크림에서도 경험할 수 없는 깊고 풍부한 바닐라의 맛을 느낄 수 있다.

하겐다즈 바닐라는 합성 색소 및 합성 향료 없이 오직 5가지 순수한 원재료만으로 만들어져 바닐라 본연 그대로의 맛을 가장 궁극적으로 구현해낸다. 고품질의 크림, 우유, 설탕, 신선한 달걀(난황)만을 베이스로 사용하고, 프리미엄급 버번 바닐라 추출향을 더해 완성한다. 이 외에 부수적인 재료나 합성 향료가 단 하나도 들어가지 않아 깊고 부드러운 재료 본연의 맛을 자랑한다.

기준에 맞볼 수 없던 극강의 깊고 부드러운 풍미로 입소문을 탄 하겐다즈는 1976년 뉴욕 브루클린에 하겐다즈 샵 1호점을 내면서 본격적인 프리미엄 아이스크림 매장 운영을 시작했으며, 현재는 미국 전역과 전 세계 50여 개국에서 800여 개의 매장을 갖고 있다. 국내에서는 1991년 판매를 시작했으며, 현재는 전국에 총 7개 하겐다즈 매장을 운영 중이다. 전국 편의점 및 대형마트 등에서도 하겐다즈 제품을 만날 수 있다.

◆최고의 디저트 경험 선사 위한 노력

하겐다즈는 바닐라맛에 안주하지 않고, 새로운 플레이버를 개발하고 다양한 소비자 접점을 만들어내는 등 혁신적인 아이스크림 브랜드로서의 입지를 다져나가고 있다.

최근에는 하이엔드 5성급 호텔 반얀트리 클럽 앤 스파 서울과 함께 '그린티 초콜릿 포레 아이스크림 케이크'를 시즌 한정으로 출시했으며, 스타벅스와 함께 감사의 달 시즌 한정 아이스크림 케이크 출시하는 등 프리미엄 브랜드들과 협업하고 있다.



5가지 순수한 원재료만으로 만들어진 하겐다즈 바닐라 아이스크림.



하겐다즈는 감사의 달을 맞아 스타벅스와 시즌 한정 아이스크림 케이크를 출시했다. /하겐다즈

'품질·혁신' 가치 추구 위해 개발 노력 프리미엄 브랜드와 협업, 케이크 출시 세계적 파티셰와 새로운 플레이버 개발 소비자에 최고의 아이스크림 선보일 것

또한, 새로운 플레이버 개발과 출시에도 열을 올린다. 지난 2023년 세계적인 프렌치 파티셰 피에르 에르메와 글로벌 파트너십을 맺고, 스트로베리&라즈베리, 더블 초콜릿 가나슈, 레몬&유자 등 마카롱 아이스크림 3종을 출시한 바 있으며, 4월에는 봄을 맞이해 시그니처 플레이버인 바닐라에 봄을 연상시키는 라벤더 톤의 블루베리 마카롱을 조합한 신제품을 추가로 출시했다.

현대 마카롱 '원조'와 프리미엄 아이스크림 브랜드의 만남은 많은 이들의 이목을 끌고 있으며, 출시 제품 중 스트로베리&라즈베리와 더블 초콜릿 가나슈는 하겐다즈 역사상 신제품 최고 매출을 기록할 정도로 많은 사랑을 받았다.

하겐다즈 마케팅 관계자는 "60년이 넘는 시간동안 전 세계 50개국에서 사랑받아온 프리미엄 아이스크림 브랜드 하겐다즈는 창립자의 장인 정신 아래 '품질'과 '혁신'이라는 두 가지 가치를 추구하며 소비자에게 최고의 아이스크림을 선보이고 있다"며 "앞으로도 견줄 수 없는 최고의 디저트 퀄리티와 경험을 선사하기 위해 플레이버 혁신부터 소비자 접점 확대까지, 보다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포부를 드러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바스타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최정 통산 홈런 신기록에 MLB닷컴 "KBO 홈런왕 탄생"
▲김하성, 이틀 연속 멀티히트 콜로라도 전 2타점 결승타 /사진 뉴시스

▲'슈퍼팀' KCC vs '첫 우승' kt...이구 동성 '트로피는 우리 것'
▲보름 신 손흥민, 28일 아스널과 복런던더비서 EPL 10-10 재도전



▲인니축구협회장 "신태용 감독과 2027년까지 재계약 합의" /사진 뉴시스
▲셰이크 살만 AFC 회장 방한...축구협회와 시상식 개최 등 논의